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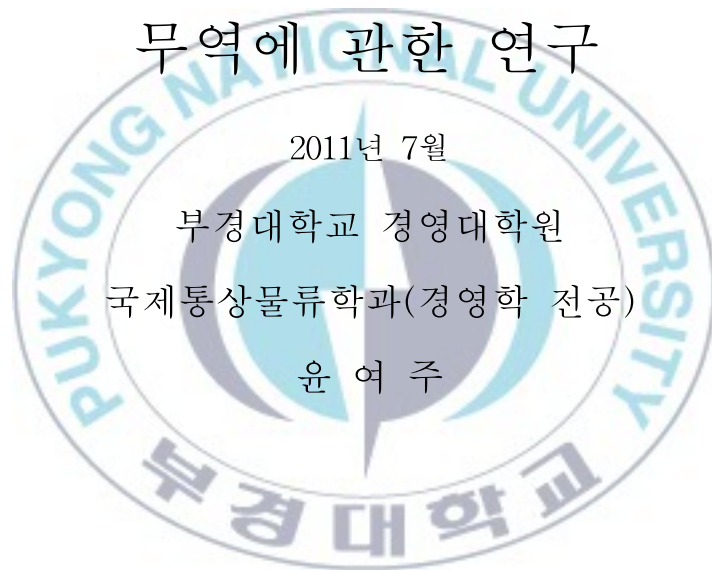
고대 낙동강 유역에서의 철 생산과
무역에 관한 연구

2011년 7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경영학 전공)

윤 여 주



경영학석사 학위 청구논문

고대 낙동강 유역에서의 철 생산과 무역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홍 석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7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윤 여 주

윤여주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7월 4일

주	심	경제학박사	김 은 채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최 영 봉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최 홍 석 (인)



- 目 次 -

표목차	iii
그림목차	iv
Abstract	v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제II장 낙동강 유역 고대 국가의 형성과 철기문화	
제1절 삼한 78국 군장사회의 성립	3
제2절 낙동강 유역 고대국가 발전양상	7
1. 진한 12국과 신라	8
2. 변한 12국과 가야	13
제3절 고대 낙동강 유역 철기문화	19
1. 낙동강 유역 국가들의 철기문화	19
2. 고대사회 철기 보급과 교역	24
 제III장 고대 낙동강 유역 국가들의 철 생산	31
제1절 고대 철 생산방식 및 특징	31
1. 고대 국가에서의 철 생산방식	31
2.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철의 품질특성	36

제2절 고대 철 무역	38
1. 변·진 시대 철 생산의 비교우위	38
2. 가야, 신라 시대의 철 생산과 유통	41
제IV장 가야 및 신라의 철 무역	48
제1절 가야 및 신라의 무역 형태	48
제2절 주변국가의 철무역	50
1. 중국 및 일본과의 철 무역	51
2. 삼국 및 남북국 간의 철 무역	54
제3절 철 무역 발전을 통한 통일국가의 성립	61
제V장 결론	62
참 고 문 헌	64

<표 목 차>

[표4-1] 백제 웅진시대의 대중관계	56
----------------------------	----



<그 립 목 차>

[그림 1] 따비	21
[그림 2] 철검, 철모	21
[그림 3] 고대 철광석 분포도	32
[그림 4] 석장리 유적을 통해 본 고대 철 생산 방식 모형	35
[그림 5] 판상철부의 변모	47
[그림 6]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발견된 철정	52
[그림 7] 와질토기	53
[그림 8] 낙랑토기	53
[그림 9] 야요기토기	53
[그림 10] 신라 단양적성비	58



A Study on the Iron Production and Trade in the Nakdong River

Basin of the Ancient Korea

Yoon Yeo Joo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ncient cultures of the peninsula increased the widespread use of iron in the region. With the development and use of iron in the region, agriculture production was also enhanced. In addition, the use of iron enhanced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people in the region.

The already established iron trade between China's Hanguhnyeon and Japan allowed the prevalence in the use of iron. This also helped the peninsula to establish its own prevalence as iron producer. In addition the high quality of iron improved trade between China and Japan so further increasing the economic strength of the region.

The ancient tribal society of the region consisted of various clans. These clans provided a major contribution in the discovery of iron in areas surrounding the Nakdong River.

Freeing the areas of foreign forces around the Nakdong River allowed the development of trading routes along the river.

The Nakdong River is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Gaya. This gave

Gaya a great economic advantage as this historic trade route of the Nakdong River, was the basis of the most important trade links in the Asian region. This also benefitted Silla which brought unification to the three kingdoms. So this established iron as a resource available to all three countries of the union.

So the Nakdong River helped the development of the Iron culture. The unified three countries now had a shared interest in this development.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고대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철기문화를 이야기할 때 역사는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변영을 구가하였던 가야를 빼놓지 않는다. 비록 통일왕국으로서의 국가체제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가야는 철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문화를 꽃피웠으며 오랫동안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연맹체제 집단이다. 왜곡·윤색된 일본서기나 미약한 우리나라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되고 있는 가야사에서 철기 문화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변국들과의 철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낙동강 유역 고대 국가들의 모습과 철기문화에 대해 알아본 후, 가야와 신라를 중심으로 철의 생산과 주변국들과의 철 무역 형태를 기존의 사료와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그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가야문화 기반을 형성하는 기원전 1세기 전반부터 가야 연맹이 소멸되고 신라에 합병되는 기원후 6세기 정도로 한정한다. 당시의 낙동강 유역의 철기문화와 철 생산방식 그리고 가야와 신라가 행

했던 철 무역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한반도 고대무역을 규명해보기 위해 국내외의 각종 사료와 논문, 서적들을 기초로 하여 문헌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문헌을 통한 세부적 연구는 역사 및 경제사적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시대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무역거래의 방법과 무역거래의 형태 및 경로를 철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II장 낙동강 유역 고대 국가의 형성과 철기문화

제1절 삼한 78국 군장사회의 성립

중국 역사서 《三國志》東夷傳의 내용은 찬자(撰者)인 진수(陳壽)가 생존했던 3세기 중엽 당시의 동이 사회상을 주된 시각적 대상으로 삼아 서술한 것이지만, 그 이전의 모습도 當代와 연관하여 압축 기록해서 함께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¹⁾ 또한 《三國志》東夷傳에 수록된 각 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발전과정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양상을 보이지 않고 각기 先後를 달리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구려나 부여가 고대국가 성립 과정에 있어서 그 발전 단계가 앞선 것이었다고 한다면, 동예나 옥저를 비롯하여 三韓의 사회상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²⁾ 이와 같은 현상은 읍락(邑落)이 속한 동이사회(東夷社會) 각각의 형성 및 발전 단계, 그리고 읍락의 성장 문화에 따른 성격 변화 양상을 초기 국가 발전과정 속에서 살펴볼 때, 동일한 구도에서 앞뒤를 달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東夷 각 사회의 역사 발전과정은 그 지리적 조건이나 문화적 경험 등이 상이(相異)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차(差)에

1) 김철준, <魏志 東夷傳에 나타난 韓國古代社會의 性格> 《韓國文化史論》, 지식산업사(1976)

2) 김정배, <韓國古代의 國家起原論> 《白山學報》 14, 백산학회(1973) ;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고려대학교출판부(1985), pp.50-52

따르는 개별 읍락사회의 자치력(自治力)의 온존 정도나 읍락 사이의 차등화 현상, 그리고 읍락 내부의 계층 분화 정도는 선후를 달리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국가의 전개 과정이 읍락사회에서 출발하여 小國 및 大國 단계를 거쳐 연맹왕국(聯盟王國)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전제할 때³⁾ 읍락은 그것을 거느린 초기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모습이 변모한다는 점에서, 먼저 읍락이 성장 분화해 가는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초기 국가의 사회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취락단위였던 읍락사회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일한 혈족집단(血族集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씨족사회(氏族社會)로 이해하고 있다.⁴⁾ 그래서 읍락의 경제적 생산 활동이나 종교 의례 등에 있어서는 혈연적인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소속 읍락원의 공동 참여라는 운영 원리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산천을 경계로 하는 개별 읍락사회의 활동 공간은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의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치력을 지니고 있었다.⁵⁾

그러다가 개별적인 읍락의 범주를 넘어서 주변의 읍락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는 우선 읍락사회에서 이루어진 족외혼의 습속(習俗)과 읍락 간의 물자교역이 꾸준히 진행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족외혼이 씨족 내부를 벗어난 다른 씨족과의 혼인으로 상정될 때, 그것은 혈연적인 교류를 통한 읍락 간의 접촉, 즉 씨족과 씨족 간의 연결 고리로서 기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읍락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인 측면의 교역 활동 역시

3) 김두진, <馬韓 社會의 構造와 性格> 《馬韓百濟文化》 12,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1990), pp. 78-82

4) 김두진, <三韓時代의 邑落> 《韓國學論叢》 7,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1985), p.29

이종욱,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서강대학교(1982), p.16

5) 김두진, <위의 논문>,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1985), p.22

읍락과 읍락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면서,⁶⁾ 지역적으로는 개별 읍락사회의 영역을 넘어서는 보다 확대된 활동 공간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읍락 간의 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씨족의 결합에 의한 부족사회(部族社會)의 성립을 배태하게 하였으며, 공간적으로도 개별 읍락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면서 國邑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읍락들로 결합된 ‘國’이라는 정치체제를 성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國으로는 먼저 《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구체적인 國名이 소개된 三韓 78國의 존재가 있다. 물론 國 사이의 인구 규모에 따라 大國과 小國으로 나누면서 그 지배자들을 각각 신지(巨智)에서 읍차(邑借)로 구분하여 지칭한 것으로 보아, 일단 國의 외형적인 발전수준에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지만 大國역시 小國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 것이라면, 國의 본래 모습은 小國이었을 것이다.

小國이 성립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읍락 간의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⁷⁾ 그것은 國邑과 읍락의 존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삼한의 소국은 국읍을 중심으로 주변 읍락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이며, 소국 내에서 담당하는 국읍의 통치기능으로 인해 소국은 정치 · 경제적으로 통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단일한 정치집단으로 파악된다.⁸⁾ 곧 기록상 국읍으로 나타나는 단위집단은 여러 읍락 가운데 대읍락으로 성장한 정치체로서 소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면, 어떤 읍락은 전통적인 자치능력을 제약받으면서 소국 내의 구성단위로서 편입되어져 부락공동체로 존재하기도 하였다.⁹⁾

이러한 소국들이 분립하는 상황이 진전하면서 삼한의 제국(諸國)사이에

6) 정경희, <先三國時代 社會와 經濟; 정치권력의 성격과 유통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41, 연세대학교출판부(1984)

7) 문창로, <三韓時代 邑落社會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논문(1995), p.72

8) 이현혜, 《三韓社會形成科程研究》, 일조각(1984), pp.125-129

9) 김두진, <앞의 글> 《韓國學論叢》 7,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1985), p.21

세력의 크기나 우열에 따른 구분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곧 우세한 소국이 주변 지역을 편입하거나 흡수 통합하는 영역 확대가 이루어질 때, 삼한의 제국(諸國) 가운데 小國과 구별되는 大國이 대두한 것으로 보인다. 大國은 小國의 바탕 위에서 성장한 것으로 소국 단계의 國邑과 읍락 외에 새롭게 편입된 별읍(別邑)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다면, 이 때의 읍락은 국읍(國邑), 별읍(別邑), 읍락(邑落)의 형태로 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小國과 大國은 혼재되어 《三國志》東夷傳에 등장하므로, 기원을 전후한 때부터 3세기까지 일정 기간 삼한 사회에 공존하면서도 그 세력의 크기와 우열에 따라 정치지배자의 등차화 현상이 함께 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¹⁰⁾ 즉 경초년간(景初年間)에는 위(魏)나라에 의해 한군현(漢郡

10) 《三國志》東夷傳, (前略)各有長帥大者自名爲臣智其次爲邑借散在山海間無城郭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漬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臣豐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曰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牟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古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漬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總十餘萬戶辰王治月支國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跂支漬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

(삼국지) 동이전, (전략) 저마다 장수가 있어 큰 자는 스스로 일러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한다.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며 성곽은 없다. 원양국과 모수국, 상외국, 소석색국, 대석색국, 우휴모탁국, 신분고국, 백제국, 속로불사국, 일화국, 고탄자국, 고리국, 노람국, 월지국, 자리모로국, 소위건국, 고원국, 막로국, 비리국, 점리비국, 신흠국, 지침국, 구로국, 비미국, 감해비리국, 고평국, 치리국국, 염로국, 아림국, 사로국, 내비리국, 감해국, 만로국, 벽비리국, 구사오단국, 일리국, 불미국, 지반국, 구소국, 첩로국, 모로비리국, 신소도국, 막로국, 고랍국, 임소반국, 신운신국, 여래비리국, 초산도비리국, 일난국, 구해국, 불운국, 불사분사국, 원지국, 건마국, 초리국이 있으니 무릇 50여국이다. 큰 나라는 만여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이니, 총 10여만 호다. 진왕은 월지국에서 다스린다. 신지는 혹 ‘우호신운견지보안사축지분신리아불예구사진지염’의 호칭을 더한다. 그 벼슬에는 위솔과 선읍군, 귀의후, 중랑장, 도위, 백장이 있다...

縣)이 정비되면서 제한국(諸韓國)의 신지(巨智)에게는 읍군의 인수(印綬)를 더하여 내려주고 그 다음은 읍장(邑長)을 주었다는 사실로 보아, 읍군의 인수를 받은 여러 신지급(巨智級) 세력들이라는 大小의 세력집단이 함께 존재하였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진전할 경우에 大國을 중심으로 주변의 小國들이 결합하는 연맹체가 성립되어 연맹왕국이 대두하는 바탕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三國志》에 보이는 부여와 고구려 사회와 같은 연맹왕국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소연맹국의 국읍으로 발전했던 대읍락 가운데는 이후 연맹왕국의 都邑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읍락은 본래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해체되면서 연맹왕국의 정치체에 새롭게 재편되어 가기 시작하여,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집단으로 城, 村과 같은 편제단위로 자리하였을 것이다.¹¹⁾

한편 읍락이 변화하는 계기는 문헌상에 자주 보이는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小國, 大國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사업의 수행, 이민족의 침입에 의한 대외 전쟁 등을 이유로 하여 공동체적인 성격이 점차 분해되고 읍락 구성원의 계층 분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大國을 중심으로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 연맹왕국이 등장하면서 읍락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성격은 무너져 연맹왕권의 권력에 통제되는 행정단위로서 그 성격이 변하였다.

제2절 낙동강 유역 고대국가 발전양상

11) 노중국, 《韓國古代史論》, 한길사(1988), pp.241-243

1. 진한 12국과 신라

신라는 위지 동이전 변진조(魏志 東夷傳 弁辰條)에 보이는 진한 12국 중의 사노국(斯盧國)에서 기원한다.

즉 진한 12국에는 기저국(己祗國), 불사국(不斯國), 근기국(勤耆國), 난미리미동국(難彌離彌凍國), 염해국(冉奚國), 군미국(軍彌國), 여담국(如湛國), 호로국(戶路國), 주선국(州鮮國), 마연국(馬延國), 사로국(斯盧國), 우유국(優由國)이 있었는데 이 중에 사로국(斯盧國)의 이름이 보인다.

三國遺事 卷1 新羅 始祖 혁거세대조(赫居世大條)에 나오는 기록에 “진한지지고유육촌(辰韓之地古有六村)”이라하여 辰韓 땅에 6촌이 있었음을 밝혔는데 여기에 보이는 6촌을 사노육촌(斯盧六村)으로 보면 辰韓地는 곧 新羅(斯盧)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新羅의 前身이 辰韓임을 알 수 있다.

三韓 중 진한의 위치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 견해는 馬韓이 호남지방이고 弁辰韓은 영남지방으로 보아서 辰韓이 경상도라는 견해가 대다수의 학자들에게 정설(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한 內 여러 소국 중 사로국이 그 맹주국(盟主國)으로 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보다 사로국이 위치하였던 경주지역의 자연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산지로 둘러싸인 형산강 유역의 경주평야는 고대인들이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기에는 낙동강 유역의 상주·대구·김해 등지와 더불어 경상도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들 지역은 풍부한 농산물과 함께 철자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이용한 외부와의 교역이 활발하여 선진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¹²⁾

특히 이들 지역 중에서도 대륙의 문물 뿐 아니라 해안루트를 통해 외부

12) 《三國志》魏書 弁辰傳.

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김해와 경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낙동강을 경계로 한 변한과 진한지역에서 가장 선진정치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경주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서로 문화의 계통이 다른 유이민(流移民) 집단이 정착하였으며,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우수한 철기문화를 가진 서로 다른 계통의 유이민 집단이 선주토착세력(先住土着勢力)과 결합하여 6촌세력을 단일화한 보다 확대된 연합정치집단인 사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 등장한 사로국은朴·昔·金 3세력집단 간의 보다 강력한 지배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으로 주변의 제소국보다 정치적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2세기 초 파사왕 때부터 사로국의 대외 진출이 본격화 되었는데 파사왕 23(102)년에 사로국은 처음으로 음즙벌국(音汁伐國; 경주 안강 일대), 실직곡국(悉直谷國; 강원도 삼척시 일대), 압독국(押督國; 경북 경산시 일대)을 병합하였으며, 이서국(伊西國)도 비슷한 시기에 사로국의 세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실직국은 2년 뒤인 파사왕 25(204)년, 압독국은 44년 뒤인 일성왕 13(146)년에 모반을 하였으며, 이서국 또한 3세기 말 유례왕 14(297)년에 금역(金域)을 유린 할 만큼 대대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로국의 주변 소국집단의 병합은 완전한 영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로국의 위세에 물리게 된 소국의 지배집단이 더 이상 사로국과 대립하여 경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군사 활동 중지나 조공의 약속 등 일종의 서약¹³⁾으로 한층 강한 정치·경제적 예측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로국의 병합지역에 대한 통치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릴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종래 토착세력에 의한 지

13) 이종욱, 《新羅上代國家形成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1980)

배체제를 인정한 불완전한 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합지역의 토착지배세력은 항시 이러한 사로국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러한 병합지역에 대하여 보다 확고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왕의 순무(巡撫)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초 파사왕때부터 시작된 사로국의 대외진출은 3세기 중엽에 이르러 진한지역의 여러 소국집단들을 모두 병합하였다. 그러나 진한의 소국들도 골벌국(骨伐國)의 아음부왕(阿音夫王)의 기사나¹⁴⁾ 음즙벌국(音汁伐國)과 관계되는 기사는 다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前略) 王命六部 會饗首露王五部皆以伊瀋爲主 唯漢祗部以位卑者 主之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祗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陀鄒干家...(《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王 23年條)

위의 원문에서 보이듯 五部에는 각기 이찬(伊瀋)이 있었으며, 또 이찬 이하 여러 계층의 거요(巨僚)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진한 소국 중 가장 먼저 사로국에 편입되었으며 비교적 작은 정치집단으로 보이는 음즙벌국에 주인 타추간(陀鄒干)과 그 아래 이찬 이하의 여러 신료가 있었다면 다른 소국들도 사로국과 비슷한 거요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 · 사회적인 면에서도 거의 대등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외정복활동은 사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진한소국들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 되었을 것이다. ¹⁵⁾

14) 《三國史記》 新羅本紀 助賁王 7年條.

15) 노태돈, <三國의 成立과 發展> 《한국사》 2, (1977), p.187

그러므로 앞에서 본 것처럼 《三國史記》新羅本紀의 1세기 중엽 소백산맥 부근에서 벌어진 신라와 백제 사이의 국경쟁탈전이나, 2세기 중엽 죽령(竹嶺), 계립령(鷄立嶺)의 개척기사 등은 사로국의 사실이 아닌 진한 소국들의 활동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진한 소국 간의 정복활동은 차츰 사로국에 의하여 통합되어졌으며 아래의 기사를 통해 진한 8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국들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로국에 병합된 후 그들은 서로 연합하거나 한이나 백제 등과의 제휴를 도모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진다.¹⁶⁾

景初中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其次與邑長其俗好衣幘下戶詣郡朝謁皆假衣幘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번역)경초 중에 명제가 몰래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보내 바다를 넘어 두 군을 평정하고,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는 읍군의 인수를 더해주며 그 다음에게는 읍장을 주었다. 그 속습이 옷과 책을 좋아하여 하호조차도 군에 이르러 조알할 때면 모두 옷과 책을 빌려 스스로 인수와 옷, 책을 갖추니 1천여인이 있었다. 부중사 오림은 낙랑이 본래 한국을 통솔하였다 해서 진한의 여덟 나라를 낙랑에게 떼어주었다.

그러므로 사로국은 이들 병합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지배방법을 달리 하였을 것이다.

감문국(甘文國)이나 골벌국(骨伐國)처럼 종래의 소국을 복속한 후 그 지역은 郡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세기 초 음즙벌국(音汁伐

16) 《三國史記》列條 昔于老條.

國), 실직국(悉直國), 압독국(押督國), 이서국(伊西國) 등은 사로국에 병합되면서 구체적인 편제내용이 없었으나 3세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의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배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종래 소국 지역들도 郡으로 편제되었다고 보인다.

사로국은 2세기 말 경상북도의 중심지역인 낙동강 상류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통제나 수취체제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군사적 책임을 가진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왕경에서 직접 파견된 군사적인 인물로 병합지역의 통치책임자를 君主라 하였으며 소문국(召文國)을 정벌한 좌우군주(左右君主)는 6세기 초엽 지증왕대 州의 장관인 최고지방관 군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3세기 중엽 사로국이 낙동강 유역의 가야지역을 제외한 경상북도의 전 지역을 확보하게 되자 종래 진한소국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병합지역에 대한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에는 성곽의 축조와 君主, 城主 등을 왕경에서 직접 파견하여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¹⁸⁾ 특히 병합지역 중 이서국(伊西國), 골벌국(骨伐國), 압독국(押督國)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으므로 후대까지도 이들 지역은 사로국이 신라왕국으로 발전하게 된 호국의 성소로 생각하여 신라최고의 제사지로 숭앙하게 되었다. 또 감문국(甘文國), 사벌국(沙伐國) 지역은 고구려·백제계와 세력을 다투던 지리적 요충으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세력을 누르고 한반도의 중심부인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초지로 압독국(押督國) 고지의 하주와 더불어 상주의 치소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소국의 중심으로 비정되는 경산, 탑리, 영천, 상주 등지에 4~6세기에 해당되는 상당한 규모의 고분군과 많은 부장품

17) 이종욱, <앞의 글>, 서강대학교(1981), p. 250

18) 《三國史記》新羅本紀 沾解王 13年條.

을 볼 때 사로국은 중앙집권을 이룩하는 6세기 이전까지 이들 지역의 토착세력을 예우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경주지역의 사로국이 경상도 지역의 진한소국을 병합하고 소국집단의 고지와 토착세력들을 중심으로 정치·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야세력을 합치고 신라왕국으로 발전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2. 변한 12국과 가야

변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에 앞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변한을 진한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三國志》魏書 東夷傳의 기록에 의하면 3세기 전반 전라도, 경상도 각 지역에는 24개의 小國과 國의 규모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小別邑(小別邑)을 포함하여 다수의 집단들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들은 의복과 거처(居處)가 서로 같고, 언어 법속(法俗)도 비슷하여¹⁹⁾ 전체적으로 동일한 문화기반을 가진 집단들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기준에서인지 진한과 변한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록상으로 언급된 기준은 아주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첫 번째는 진한과 변한은 언어, 법속(法俗)은 같으나 “사제귀신(詞祭鬼神)” 즉 제사의식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²⁰⁾

두 번째는 진한의 성립은 중국계 유이민(流移民)과 관계되는 설화를 가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24국 중에는 辰王에 소속된 12국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24국의 이름을 列記하는 과정에서 변한 소국

19)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20) 《三國志》同上, “弁辰與辰韓雜居亦有城郭衣服居處與辰韓同言語法俗相似祠祭鬼神有異”

은 국명 앞에 弁辰 두 자를 덧붙임으로써 그렇지 않은 진한 12국과 구분하였다.²¹⁾ 구분된 변한국의 이름은 “ 변진미리동국(弁辰彌離凍國). 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 변진고자동국(弁辰古資凍國). 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변진반로국(弁辰伴路國). 변진낙노국(弁辰樂奴國).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이다.

전기가야(前期伽倻) 또는 조기가야(早期伽倻), 가야전기 등을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 범위나 이론의 근거는 다소 다르나 공통적으로 이 단계의 성격을 변한연맹단계로 규정짓고 있다. 그리하여 가락국기(駕洛國記)의 수로왕(首露王)설화와 3세기 이전 《三國史記》신라본기에 나오는 가야관계 기사(金官國)의 주체를 김해 구사국(拘邪國)으로 보고 이를 전기가야의 맹주세력으로 해석한다.²²⁾

일반적으로 변한의 중심세력은 김해 구사국(拘邪國)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변한 내에서 구야국이 발휘하던 기능을 통해 이 사회의 성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먼저 김해 구야국이 변진사회 내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검토되어야 한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락국기 기록에 의하면 수로왕은 기원후 1세기경 경주의 탈해(脫解)와 함께 등장하여, 2세기 전반 신라 파사니사금(婆娑尼師今)대를²³⁾ 거쳐 2세기 말엽까지 150년 이상 활동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가락국기의 금관국왕(金官國王) 세계(世界)에도 600여 년 간 10여 왕명만이 실려 있다. 고령가야의 세계가 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16대에 이르렀다는 기록과 비교해

21) 이현혜, <삼한의 대외교역체계>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논총》, 일조각 (1994) p.293

22) 천관우, <復元伽倻史>(上) 《文學과 知性》 28, 문학과지성사(1977), p.304

23)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3년條(102년)

보면 그 모순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와 같은 모순은 근본적으로 수로왕의 재위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모순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수로왕의 활동기간을 2세기 후반대로 이해하지²⁴⁾ 또는 서력 기원후 200여 년 간을 특정 1인의 재위기간으로서가 아니라 경주의 박씨(朴氏), 석씨(昔氏) 집단과 유사한 수로집단 전체의 활동기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면 김해 구야국이 경주와 대등한 유력 집단으로 부상하던 시기가 2세기 후반대로 국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경남 일대에서 집중 발견되는 1~3세기 동안의 선진적인 유물, 유적의 존재와도 맞지 않는다.²⁵⁾ 그러므로 후자와 같이 수로왕은 특정 1인이라기보다 기원후 1~3세기 사이에 김해지역에서 활동하던 수로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김해세력이 경주세력과 함께 경상도 일대의 유력한 양대 세력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든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김해의 지리적 특성과 경상도 지역의 철자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집약된다. 즉 당시의 가장 인기 있던 교역품이 철이었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개발이 용이한 철자원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인이다. 이에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김해의 지리적 위치가 낙동강 중상류 각지로 통하는 관문인 동시에 서해 및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지라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 중심지로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구야국의 정치권력의 성격과 세력범위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역의 중심지도 교역 담당세력, 교역품, 교역형태, 교역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정 세력

24) 김철준,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 역사학회(1962), p.190

25) 이현혜, 《앞의 책》, 일조각(1984), pp.84-85

권에 소속되지 않고 정치 군사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치를 보장받는 문자 그대로의 개방적인 무역 중개항구로 발달하는 지역이 있다. 반면 교역활동은 모두 정치활동의 중심지에서 진행되며 경제적으로 재분배체계(再分配體系)_redistributional system가 확립되어 지배집단이 물자의 집적(集積), 교역, 분배의 여러 가지 과정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권력이 발휘되는 형태의 교역체계도 있다.²⁶⁾

후자와 같이 집권적인 대외교역체계가 확립된 사회는 교역가치가 높은 특정자원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물품이 지배자집단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됨으로 정치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이다. 이와 달리 지리적으로 배후의 오지(奧地)에 있는 다수 집단들이 특정한 물자를 얻고자 할 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교역과 분배를 통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관문지역사회(gateway community)도 있다.²⁷⁾ 만약 이러한 교역체계하의 교역중심지라면 고고학상으로도 일반지역과 달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유물들이 출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변한사회 내에서의 김해지역의 비중과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교역 가치가 높은 특정자원의 독점이란 측면에서 《三國志》의 기록을 보면 “국출철한예왜개중취지(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라고 하여 철을 생산하는 국들이 진한인지 변한인지 또는 양쪽 모두인지 불확실하다. 다만 “제시매개용철여중국용전우이공급이군(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이라는 설명을 통해 철을 매개로 주변 여러 세력 사이에 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자가 상호 교역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만으로는 철의 공급이 김해와 같은 일정 小國에게 독점

26) Renfrew, Colin, "Trade as Action at a Distance: Questions of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1975), pp.8~10

27) Hirth, Kemmeth G., "Interregional Trade and Formation of Prehistoric Gateway Communities", *American Antiquity*, 43-1, (1978), pp.37-38

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지리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변한 小國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해안 일대와 낙동강 중하류 연안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경남 해안 일대의 小國들은 서해, 남해,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역물자의 운송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낙동강 수로(水路)로부터 서남해와 일본을 연결하는 김해지역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래, 김해지역은 일본 열도와 거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대한해협(大韓海峽)을 건너는 출발점이었다. 마산, 고성, 사천, 하동 등의 지역도 왜(倭) 또는 중국 군현(郡縣)과 접촉하는 데 지리적으로 특별히 불리하거나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三國志>기록에서도 보이듯이 낙랑, 대방군 지역으로부터 김해에 이르기까지는 선박들이 해안선을 따라 연안항해(沿岸航海)를 하였다.²⁸⁾ 그러므로 경남 해안 일대의 소국들은 모두가 지리적으로 외부세력과의 접촉이 용이한 개방 상태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상태라면 경남 해안 일대의 소국들은 오히려 그 자체가 개별적인 gateway community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을 하나로 통괄하는 상위의 세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철 자원과 지리적인 조건만으로는 고성, 사천, 마산, 동래 등 경남 해안 일대의 변한 소국들이 김해중심의 교역체계의 하부단위로 편제되어야 할 개연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한국의 사서에서 보이는 내용이나 고분에서 발굴되는 유물들로 보아 동래 김해지역의 세력이 훨씬 강력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중심에는 철의 생산과 철 무역, 그리고 철 농기구 사용에 따른 농업생산성 향상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김해지역이 중국 군현 또는 왜(倭)와 독점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정부와 직

28) 《三國志》，魏書 東夷傳 倭人條 “從郡至倭循海岸水行歷韓...”

접적인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유물로 화천(貨泉), 오수전(五銖錢)과 같은 중국의 금속화폐가 있고, 이는 당시의 교역지를 추정하는 중요기준이 된다. 이런 중국 화폐가 전남 해남 군곡리, 거문도, 경남 김해, 마산, 제주도 등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서 두루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열도와와의 교역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현재 유물의 과학적 분석 작업 부족으로 제작지가 확인된 자료는 그리 많지 않으나 형태상으로 일본 열도산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예를 보아도 김해, 고성, 마산, 창원, 삼천포 등지에서 널리 출토되며, 김해지역에만 두드러지게 집중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의 규모나 내용, 특히 철 무역과 관련하여 김해지역은 그 당시 한반도 대외교역의 중심지였음을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3세기 변한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교역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3세기 후반 쯤에 보내는 유사(遺使) 행렬에서 변한이 빠진 것도 마한, 진한과는 달리 변한사회에는 다수 소국에 대해 대외적 교역활동을 장악하는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 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정세력의 정치권력이 배제되고 세력중심이 다원화된 상황下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역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역로의 자유로운 이용, 다양한 교역품의 확보 등, 변한사회에서는 주변 여러 세력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었다고 생각된다.

교역중심지의 다원화 추세는 제철기술이 확산되면서 철원료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를 보급하는 공급원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3세기 단계에 포상팔국(浦上八國)으로 표현된 해로상의 소국들이 구야국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 3세기 일본 열도의 사마대국(邪馬臺國)이 30여 소국에 대해 對중국 교역권을 독점한 것과 비교할 때 변한지역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의

전개는 3세기 변한사회가 가지는 교역체계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²⁹⁾

이렇듯 해상루트를 통해 해상교역을 활발하게 구가했던 가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前期와 後期로 분류되는데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금관가야가 전자의 그것이고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대가야가 후자에 해당된다. 한번도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가야는 399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왔던倭를 격침하고자 남하했는데, 이때 가야로 도망쳤던 왜(倭)를 쫓아 가야까지 왔던 고구려 세력에 의해 결국은 금관가야가 몰락하고 만다. 이는 전기가야의 해체를 초래하였고 이후 금관가야의 왕족들은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하게 된다. 후에 상대적으로 고구려의 침입이 적었던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맹주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신라와 백제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양국의 압박을 받으며 신라와의 혼인동맹 등의 적절한 외교 활동으로 후기 가야의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親백제와 親신라의 세력으로 분파되어 세력이 분열되고 결국은 통일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가야의 세력은 역사의 뒤안편으로 물러나게 된다.

제3절 고대 낙동강 유역 철기문화

1. 낙동강 유역 국가들의 철기문화

29) 이현혜, <삼한 및 삼국의 교역활동>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1994), pp301-302

한반도 남부지역에서의 철기전래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전국시대 연(燕)나라의 철기문화가 전래되는 시기로서 기원전 3~2세기 초에 해당된다. 철기는 주조철부(鑄造鐵斧_괭이)와 철착(鐵鑿), 철사(鐵鉞) 등에 한정되며,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의 서남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단계는 중국 한나라의 철기문화가 전래되어 남부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생산되고 보급·확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적은 주로 영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대체로 한군현 설치 이후로서 낙랑군의 설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⁰⁾ 그렇지만, 최근에는 영남지역에서도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나라계통의 철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즉, 팔당동 45호, 49호, 57호, 77호, 78호 목관묘³¹⁾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전국시대(戰國時代)~서한초기(西漢初期)에 걸쳐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방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이다. 그리고 다호리 62호 목관묘 출토의 이형(異形)철기³²⁾도 중국의 화북(華北), 내몽고(內蒙古), 동북지역, 한반도 북부의 전국시대~서한초기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호미(鐵鋤)와 동일하다. 또한 진·변한의 대표적인 철기종인 판상철부(板狀鐵斧)도 연(燕)의 박인력(薄刃力)과 같은 형태이다. 따라서 진·변한 지역에서도 낙랑설치 이전에 이미 연(燕)나라 계통의 철기문화와 한대초기(漢代初期)의 철기기술이 전국말~한초(戰國末~漢初)의 중국계 혹은 고조선계 유이민의 이주와 함께 전래되어 철기문화의 기반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낙랑군이 설치되면서 낙랑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

30) 이남규, <南韓 初期鐵器 文化의 一考察> 《韓國考古學報》 13, 한국고고학회 (1982)

31) 《大邱八湊洞遺蹟 I》,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慶山林堂洞遺蹟 I-F·H地區 및 土域》, 영남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1999)

32) 이견무 외,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考古學誌》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1995)

대(漢代)의 철기기술이 본격적으로 수입되어 기술상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변·진한지역에서 독자적인 철기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 경주 입실리, 구정동, 창원 다호리 등의 목관묘유적과 부산 내성, 삼천포 늑도의 생활 유적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철기는 철검(鐵劍), 철과(鐵戈), 철촉(鐵鏃), 철모(鐵鉢)등의 무기와 팽이(주조철부), 따비, 도끼, 낫 등의 농공구류, 재갈 등의 마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1] 따비

[그림 2] 철검, 철과, 철모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는 전국시대~서한초기의 철기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형태적인 면에서는 기종에 따라 고조선(낙랑) 혹은 중국과 동일한 것, 중국철기의 계보를 잇지만 변형되어 재지화(在地化)한 것, 재지적(在地的)인 청동기의 계보를 잇는 변·진한의 독창적인 것 등 다양하다. 그리고 단조철기기술도 최근의 발굴 성과에 의하면 낙랑설치 이전으로 보급될 수 있는 것도 있어 한(漢)의 철기 기술이 반드시 낙랑군의 설치를 계기로 전래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³³⁾ 오히려 고조선 혹은 중국 유이민을 통해 전국~서한초기의 철기 기술이 전래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초기의 변·진한 철기는 일부지역에서 특정한 기종에만 한정되었을 가능

33) 이재현, <弁韓社會의 形成과 發展>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 (2003), p. 29

성이 크고,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되고 다양화하는 것은 낙랑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철기기술의 발달로 청동검과 청동모 등의 청동기는 점차 실용적인 철기로 대체되었고, 청동무기는 의기화(儀器化) 되었다. 또한 석기의 사용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철제 도구는 자체로서도 훌륭한 효용성을 지니지만, 다른 도구의 제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철기가 주조농기구에서 먼저 발달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기구가 개발되었지만, 변·진한지역에서는 공기류와 무기류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이유는 취약(危弱)한 주조철기로는 자갈과 암석, 풍화암반토 위주의 한반도 지형에서는 그다지 큰 효용성을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농구는 주고 木器가 사용되었고, 철제 농구는 쟁이와 따비 등 일부 기경구(起耕具; 굴지(屈地))와 낫과 같은 수확具에만 이용되었다. 때문에 목재가공을 위한 공구류가 발달하게 되어, 목기의 가공에 두드러진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까지 발견된 당시의 각종 농기구와 칼집, 철기의 자루, 목제용기 및 그릇류, 부채, 현악기, 각종건축부재, 목관(木棺)등에서 목기 가공기술의 일단(一端)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철기는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크게 변화한다. 즉, 목곽묘에서는 대체로 목관묘단계의 철기내용이 계승되지만, 철축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장검과 환두대도(環頭大刀)등 새로운 무기가 출현한다. 그리고 철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長大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기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지배계층의 독점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무력도 권력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사회체제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목곽묘 출토의 철기류는 부장품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즉, 철모는 신부(身部)의 길이가長大해지는 반면 병부(柄部)의 길이는 왜소화하여 창(槍)의 본래 기능인 찌르는 용도로는 매우 불합당한 형태를 띤다.³⁴⁾ 이러한 형태는 본래의 기능보다 외형을 강조한 부장용(副葬用) 혹은

위의구(威儀具)로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판상철부도 10점 단위로 목곽의 바닥에 깔거나 묶음으로 출토되어 부장품 혹은 교역대상물의 성격이 강하고³⁵⁾ 재갈의 경우도 S자형의 표(鑢)에 고사리모양을 장식하거나, 표를 지나치게 크게 만드는 대신 술(術)은 가는 철사를 꼬아 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실용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하대 2호 목곽묘³⁶⁾에서는 철모 48점, 옥성리 나-78호 목곽묘³⁷⁾에서는 철모 104점과 철촉 64점, 철부 11점 등을 부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형무덤에서는 철기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현상은 매장의례를 통해 권력이나 위신을 세습하거나 과시하는 상징적 기능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철기의 수요는 일상의 용도보다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소모되는 양이 훨씬 많았고, 또 이러한 수요는 목곽묘가 일반화되면서 더욱 증대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3세기 무렵에는 변진에서 생산될 철이 낙랑과 대방, 마한과 예 등 한반도 전역과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 이러한 내외의 철기수요 증가는 철의 대량생산을 유도하였고, 철 자원과 기술, 유통 및 분배를 장악한 집단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더욱 확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철기기술의 발전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지역 간에 활발한 교역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고, 계층 간에도 다양한 분화가 일어났다. 철기의 생산은 광업과 채탄, 운송 등의 다양한 부수산업을 필요로 하고, 원료의 구입과 생산물의 재분배를 위한 활발한 교역을 수반한다. 따라서 철기의 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기술을 소유한 집단은 이러한 철기를 매개로 주변지역과의 교역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철기생산과 교역의 경제행위를 통하여 타 집단보다도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계층분

34) 이재현, <Ⅴ. 考察> 《蔚山下垔遺蹟-古墳》, 부산대학교박물관(1997)

35) 송계현,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 《가야제국의 철》, 신서원(1995)

36)蔚山下垔遺蹟-古墳 I, 부산대학교박물관(1997)

37) 《浦項玉城理古墳群 I・II-나 地區》, 영남문화재연구원・浦項市(1998)

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풍부한 철광과 대외수출에 유리한 김해와 경주지역이 이후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반면에 초기의 선진지역인 대구지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도 철기생산 및 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38)

2. 고대사회 철기 보급과 교역

인류가 최초로 철을 사용한 흔적은 고대 이집트 제4왕조(기원전 2613~2500)의 유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철을 가열할 수 있는 고온의 노(爐)가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의 채집도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철기문명이라고 할 만한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철기문명의 단서가 된 것은 기원전 15세기경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처음 선보인 철과 목탄을 접목시킨 신기술이 나오면서 부터이다.

신기술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북부를 무대로 활동한 히타이트족의 손을 거쳐 기원전 13세기경부터 세계 주요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13세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원전 12세기에는 이집트 지역에, 기원전 10세기에는 인도 지역에, 기원전 9세기에는 이탈리아 지역과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철기문명이 전파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춘추시대(기원전 770~476)에 철기문명이 도입되었다.

중국 등 동아시아의 철기문명 보급에는 이란계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유목민족으로 기동성을 바탕으로 남부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없었다면 동서양의 문화 교류와 철기문명의 세계적 보급의 속도는 그만큼 더뎠을 것이

38) 이재현, <앞의 글>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pp. 29-31

다.³⁹⁾

《三國志》東夷傳에 ‘國出鐵’로 기록된 철 생산지가 구체적으로 辰弁韓의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중요한 의문이다. 경주에서 울산·양산·동래·부산을 거쳐 거제에 이르는 경상도 동남 해안지대는 철 함량이 70%가 넘는 자철광(磁鐵鑛)의 집중 분포지로 알려져 있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제반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⁴⁰⁾ 지역에 따라 철 생산 개시 시기나 생산규모는 같지 않았을 것이다.

철기보급 초기단계에는 弁辰韓 지역의 정치집단들 역시 철자원을 가지지 못하거나 철기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집단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철기를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교역·정치적 관계의 형성을 통한 자원의 임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전쟁의 경우, 철기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철기를 취급하는 집단이 무기에 있어서도 우세했을 것이므로 전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실제 弁辰韓 지역의 2세기 이전 지배자의 분묘 부장품 가운데는 무기도 적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철경(鐵鏡)이나 농기구(農器具) 그리고 사치성이 높은 용기류(容器類)들이 많아 당시 지배자의 권력의 성격이 후대에 비해 물리적 힘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정치적 예측관계를 통한 철의 공급은 집단 간의 세력 우열이 확대 발전된 단계에서 상정될 수 있는 형태이다. 반면 철기보급 초기단계에서는 각 집단들 사이의 세력 격차가 크지 않았고 弁辰韓 지역에서는 이미 청동기 보급과정에서 이전부터 상당히 발달된 교역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같은 전래의 교역조직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역을 통해 철기 완제품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교역형태나 물량의

39) 김종성, 철의제국 가야: 잊혀진 왕국 가야의 실체, 역사의아침(2010) pp178-179

40) 이성주,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1993) pp.100-102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집단이나 철 교역에 충당할 수 있는 생산품을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교역품이 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철 교역량을 조절하거나 물자제공 이외에 방어나 수송업무 등, 노동력 제공을 통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에 반영된 분위기로 미루어 전체적인 물량 면에서 교역활동을 통하여 보급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⁴¹⁾

三韓의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은 농업이었고 농업중심의 생업경제에서 가장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교역품은 농업 생산물이다.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벼를 비롯한 각종 곡류(穀類)가 재배되어 왔으며 이 가운데서도 잉여재산의 축적물 또는 철 교역 대체품으로 유리한 것은 보존기간이 긴 벼종류의 곡류이다. 대마도(對馬島)·일지국(一支國)은 “배를 타고 南北으로 시적(市糴)했다”는 《三國志》東夷傳 倭人條의 기록은 일반적인 교역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동조(東潮) 교수의 해석대로 쌀을 교역하였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다.⁴²⁾ 일본열도는 기후와 자연조건이 벼농사의 재배에 적합하였으므로 양전(良田)이 없거나 부족한 대마도·일기도(壹岐島) 지역의 주민들이 변진한의 철을 사들여 倭人の 쌀과 다시 교역함으로써 중간교역의 이익을 남기면서 부족한 곡물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변진한 지역 역시 기후상 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水田조성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가진 집단이라면 쌀을 철 교역용 물자로 활용했으리란 추정은 어렵지 않다.

벼뿐만 아니라 철을 생산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집단들이 철기 획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교역품은 생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철기수요의 증대에 맞추어서 농업 생산물

41)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鐵”,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國國有市 交易有無”, 《三國志》倭人條

42) 東潮, <弁辰 辰韓의 철> 《伽倻諸國의 鐵》, 伽倻文化研究所(1994.12)

의 양을 원하는 대로 늘려나갈 수는 없으므로 철기수요가 늘어날수록 전체 생산량에 공구의 사용으로 농경지의 절대 면적이 늘어나고 노동효율이 높아짐으로써 농업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이나⁴³⁾ 당시의 노동력의 한계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교역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은 일정한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에 따라서는 농산물 이외의 교역품 확보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철기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늘어나는 철기수요에 대응하려면 농산물이나 그 외 물품 외에 보다 교역가치가 높은 물자 생산이 필요해졌을 것이다. 당시에는 水路를 통한 활동이 빈번한 시기였으므로 선박제조에 적합한 특수목재의 수요도 늘어났을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철제공구의 보급이 필요해졌을 것이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BC1세기 이래 삼한 지역에서는 농업생산뿐 아니라 토기(土器)·칠기(漆器) 등의 제작기술도 발전하고 있었다. 즉 변진한 지역에서는 종래의 무문토기(無文土器)보다 경도(硬度)가 높고 실요(室窯)에서 소성(燒成)된 회색계통의 와질토기(瓦質土器)가 새로이 만들어졌다.⁴⁴⁾ 토기는 청동기나 철기처럼 원료의 제약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토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작기술의 습득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와질토기(瓦質土器) 가운데는 형태면에서 무문토기(無文土器) 문화단계의 홍도(紅陶)·흑도(黑陶)와 같은 특수도기를 제작하던 집단들이 타날(打捺)기법, 실요(室窯)의 채용 및 소성기법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서 와질토기(瓦質土器)를 만들어 냈던 것

43) 이현혜, <三韓時代의 농업생산과 철제농기구> 《歷史學報》126, 역사학회(1990)

44) 신경숙, <釜山, 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12, (1982)

최종규,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12, (1982)

이성주, <原三國土器의 類型·系譜·編年·生産體制>, 《韓國古代史論叢》2, 韓國古代社會研究所(1991)

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⁵⁾ 만약 홍도나 흑도를 제작하던 집단 내부에서 사회 내적으로 교역가치가 높은 생산품이 요구되거나 교역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 지출되는 자체 생산물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토기 제작기술을 수용하여 이를 교역품으로 생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경주 조양동(朝陽洞) 2호분에서 출토된 유대장경호(有臺長頸壺)와 색깔·크기·형태·문양이 거의 동일한 와질토기가 부산 노포동, 김해 양동리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다는 것은 와질토기 자체가 교역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와질토기와 더불어 변진한 지역에서는 낙랑문화의 영향으로 칠기 사용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기 유행으로 칠기 수요가 늘어나고 높은 교역가치가 인정될 경우 칠기 또는 칠 원료를 교역품으로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 경남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칠기들은 낙랑이나 중국제 수입품이 아니라 삼한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작기술의 습득과 함께 원료인 옷나무를 확보해야 한다. 옷나무는 한반도 각지에 자생하는 일반적인 수종(樹種)이나 만약 옷나무 집단 자생지를 가진 집단이라면 이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칠을 비롯한 교역품 수요에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칠기가 전쟁과 생산활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역활동이 철 공급의 중요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철자원을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집단들은 철 교역용 잉여산물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추세에 있다 해도 각 집단이 확보할 수 있는 잉여 농산물의 양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은 농산물 이외의 자원개발과 기술습득에

45) 최병현, <鎭川地域 土器窯址와 原三國時代土器의 問題> 《昌山 金正基博士華甲念論叢》, (1990), pp.565-573

46) 이건무 外 3,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1> 《考古學誌》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9. 07) p.49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교역가치가 높은 물자가 생산되고 점차 생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생산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자원의 통제와 조직적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역의 효율화를 위해 물자의 생산·운반·관리·교역을 수행하는 조직적인 기능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통치조직의 확대와 권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동시에 조직의 정비와 통치력의 강화는 교역물량과 교역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게 되어 권력성장과 교역발달은 상승작용을 거듭해 나갔을 것이다. 권력성장이 이러한 내부적인 작용과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성격의 조직과 권력은 대부분의 진, 변한소국들이 읍락(邑落)들을 통제하면서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철이 보급되는 초기단계에는 환경조건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대·소의 교역조직이 발달하게 되고 이 같은 교역조직은 철뿐 아니라 각지의 물자와 정보가 유통되는 기본루트로 기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역조직과 활동이 합리적인 방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철기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철 공급을 매개로 정치-경제적 관계를 결성하거나 물리적 대결을 통해 철 교역을 독점하여 교역망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교역조직이 전쟁에 의해 개편되거나 해체되기도 한다. 2세기 후반이후 변진한 지역에서는 분묘(墳墓)에 부장(副葬)되는 철제무기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잦은 전쟁의 결과로 보인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리에 기초하는 자유로운 교역활동이 점차 물리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고, 각 소국의 정치권력이 새로운 성장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제 교역조직은 철을 비롯한 물자의 유통루트로 기능하는 동시에 다수 소국을 통제하는 보다 확대된 정치조직체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3세기 후반 진한의 이름으로 진(晋)에 유사하여

원거리 국제교역을 수행하는 조직체의 실상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변진한 지역에 있어서의 교역조직을 둘러싼 세력 경쟁은 주로 철 생산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⁴⁷⁾

그러나 철 생산과 교역을 독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강한 반발과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다수의 변한지역 정치집단들이 이러한 시도에 저항한 듯하다. 《三國史記》《三國遺事》의 물계자전(勿稽子傳)에 의하면 “신라 내해니사금대(奈解尼師今代)에 포상팔도(浦上八道)의 침입을 받은 가나(加羅)가 신라에게 구원을 청해 음에 따라 신라가 이를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의 가나(加羅)는 김해의 구야국(狗耶國)이며 포상팔국(浦上八國)은 골포(骨浦) · 칠포(漆布) · 고사포(古史浦) 등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낙동강 하류 및 남해안 일대의 수로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집단들로서 이들은 1~3세기 이래 김해세력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집단들이다. 그러므로 김해 세력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한 물자를 장악할 경우 이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三國史記》에 3세기로 되어있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의 구야국 침략시기도 문제가 되겠으나 보다 중요한 의문은 포상팔국이 구야국을 침략한 원인이다.

그런데 포상팔국의 구야국 공격이 있는 3년 후 포상팔국 가운데 3국이 다시 울산 일대로 비정되는 갈화성(竭火城)을 공격하고 있어 포상팔국의 공격 대상이 구야국에만 그치지 않고 울산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들이 울산을 공격한 것은 사로국(斯盧國)의 개입으로 구야국 공격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데 있었을 것이다. 울산은 사로국이 이용하는 중요한 해로교통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양질의 자철광(磁鐵鑛)산지로도 유명하다. 그러므로 포상팔국이 구야국과 사노국을 공격한 이유가 철

47) 이현혜, <鐵器普及과 政治權力의 성장-辰弁韓지역 정치집단을 중심으로> 《伽倻諸國의 鐵》, 신서원(1995) pp.13-18

과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포상팔국은 지리적 위치상 구야국에서 생산되는 철을 매개로 구야국과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집단들으로써 구야국을 통해 필요한 철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포상팔국의 구야국 공격은 구야국에 의한 철 공급 조직의 독점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진 각국의 저항은 교역조직의 집중화를 저지하고 다원적인 교역조직을 존속시킴으로써 이후 변진 각 소국들이 교역조직을 발판으로 통합된 정치 조직체를 구축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제III장 고대 낙동강 유역 국가들의 철 생산

제1절 고대 철 생산방식 및 특징

1. 고대 국가에서의 철 생산방식

철 생산은 채광에서부터 철기 생산까지 일련의 종합적 공정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체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노의 구조적 · 기술적 문제 등 생산 공정을 이해하려면 철생산 유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 생산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적의 조사과정 중에 부수

48) 이현혜, <앞의 글> 《伽倻諸國의 鐵》, 신서원(1995) pp.27-28

적으로 발견되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연구 자료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본격적인 철생산 유적 조사가 이루어진 진천 석장리 유적과 경주 황성동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철생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철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조건 즉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연료인 숯을 생산하는 대량의 나무가 확보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노(爐)의 열조기술(熱造技術), 노벽(내화벽)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 송풍기술(送風技術), 열감지기술(熱感知技術) 등의 기술적 요인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기술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철생산을 할 수 있다.⁴⁹⁾ 철의 원료는 크게 철광석(鐵鑛石)과 사철(沙鐵)로 분류된다. 철 생산 유적지인 진천 석장리의 경우는 철광석과 사철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경주 황성동에서는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석장리 유적 출토 사철은 티타늄의 함량이 낮아⁵⁰⁾ 금속학적 의미의 사철이 아니라 철광석 부스러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



실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석철광 산지 [그림 3]고대 철광석 분포도가 15개 읍, 사철광 산지가 21개 읍으로 나타나⁵¹⁾ 고대부터 사철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철광석을 원료로 이용할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광석의 채취 갭도 깊어져 그 만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생산효율도 떨어진다. 작업효율이 떨어지면 갭(坑)을 포기해야하고 새로운 광산을 개척하려면 새로운 광산지 확보와 함께 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기 때

49) 손명조, <韓半島 中南部地方 鐵器生産遺蹟의 現狀> 《嶺南考古學》 22. (1998)

50)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1997년 분석결과 티타늄은 철광석이 0.220%, 사철이 0.18과 0.14%로 각각 측정되었다.

51) 류승주, 《朝鮮時代 鑛業史 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1993), p.34

문에 노동력 확보와 조직력이 전제조건이 된다.⁵²⁾ 반면에 사철은 채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 포(浦)의 水軍이나 농민을 동원하여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경국대전》에도 봄·가을의 농한기에 농민들로 하여금 각각 20일이나 30일 동안 취연상납(吹鍊上納)하게 한다는 기록⁵³⁾이 있다. 또한 세종 26(1444)년 前 함경도관찰사 김종서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6斗 가량 채취한다”⁵⁴⁾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사철제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석장리의 경우는 사철이 소량으로 추산되어 원료보다는 용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원료의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석장리의 경우는 먼저 철광석을 5-10cm 정도의 일정한 크기로 파쇄(破碎)하여 맥석 등 불순물이 많은 부분을 제거한 후, B-16·17호와 같은 별도의 대상유구(臺上遺構)에서 가열한 후 제철로에 장입하고 있다. 그리고 석장리 B구의 남북 트렌치를 살펴볼 때 슬러그 무지 층 아래에 소토면과 두터운 사철층이 남아 있어 조업 전에 철광석의 가열·파쇄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석장리 주변 철 생산 유적인 구산리에서도 철광석을 분쇄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 절구공이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철광석 파쇄는 한대의 철생구(鐵生溝)와 고영진(古榮鎭)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 유적의 원료 가공장소에서는 광석을 파쇄하는 도구와 부서진 광석들이 발견되는데, 광석 부스러기는 대개 2-5cm 정도이며 광석을 고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폐료인 광석 분말가루도 함께 나왔다. 이처럼 광석을 부수고 고르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가스 상승을 방해하는 힘을 줄일 수 있고 연료가 절약되어 제련작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52) 이현혜, <앞의 글> 《伽倻諸國의 鐵》, 신서원(1995) p.23

53) 《經國大典》 公典, 鐵場條.

54) 《世宗實錄》 105, 세종28년 8월 辛酉.

반면에 광석이 분말상태로 들어가면 입자가 너무 작아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노 내부를 막아 온도를 떨어뜨리며, 심지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감으로써 녹은 철 덩어리가 바닥에 응고되어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광석 가루와 목탄은 분쇄 후 채로 쳐서 가루를 분리한다.

제철의 연료로는 목탄과 석탄이 있는데 고대에는 주로 목탄을 이용하였다. 목탄은 생산된 철에 이물질이 비교적 적게 섞이지만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못하며 동시에 타는 시간이 짧아 제련할 때 계속 노안에 목탄을 보충해야 한다. 반면에 석탄은 이런 결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연료가 쉽게 달라붙어 생산된 철에 비금속의 이물질이 많이 붙게 되며 유황 성분이 많아 철의 질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목탄을 연료로 사용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석탄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철 생산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료산지의 확보이다. 조선시대에도 철역(鐵場)은 물론 철산지를 보유한 해당 읍(邑)에 설치되기 마련이지만, 광석을 운반하기보다는 부피가 큰 연료를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노동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개 시목(柴木)이 풍부한 지역에 설치되었다.⁵⁵⁾

제련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은 송풍(送風)으로 이는 노 내의 온도 유지 및 연료 소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송풍장치로는 가죽주머니와 나무상자가 있다. 가죽주머니는 소·말·양 등의 가죽을 이용하여 바람주머니를 만든 후 손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다.

송풍장치와 노 내부를 연결하는 도구로는 죽관(竹管)·짐승뺨·토제(土製) 송풍관이 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토제 송풍관을 이용하는데, 진천 석장리·구산리, 가평 마장리, 성산 패총, 경주 황성동, 김해 봉황동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55) 《世宗實錄》 50, 세종 12년 12월 丁卯.

송풍관은 구경의 크기에 따라 내경(內徑) 6-7cm, 두께 1cm 내외의 소구경(小口徑) 송풍관과 내경 15-20cm, 두께 1-2.5cm 정도의 대구경(大口徑) 송풍관으로 구분된다.

대구경 송풍관은 대체로 마치 수키와 미구처럼 끝부분에 턱이 쳐 있거



<그림 4> 석장리 유적을 통해 본 고대 철 생산 방식 모형

나 거칠게 흠이 돌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며 끝 부분의 단면에는 단선이 그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석장리와 황성동 유적, 그리고 일본의 9-10세기경 유적인 기옥현(埼玉縣) 대산 유적의 대구경 송풍관⁵⁶⁾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풀무와 송풍관, 또는 송풍관과 송풍관을 연결할 때 필요한 구조이거나 송풍관의 제작과 관련된 흔적으로 추측된다. 즉 토제 송풍관은 바람이 새기 쉽고 신축성이 없어 연결이 어려운데, 이때 가죽주머니 같은 것으로 연결하고 그 연결부를 끈으로 매기 쉽도록 마련한 구조로 생각된다. 또 대형 토제품으로 위에서 가중되는 토압과 제작 후 아래 받침판과의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 둥근 나뭇가지 등을 둥글게 엮어 바닥에 깔 흔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은 일본의 대형 토제품에서도 보인다.

송풍관의 형태는 대부분 지름의 변화가 원통형이지만 간혹 한쪽의 내경

56) 조건호, 《東アジアの鐵器文化史》, 吉川弘文館(1982), pp.356-357

이 점차 줄어드는 절두원추장(截頭圓錐狀)의 것도 있고 ‘ㄱ’자 모양에 가깝게 휘어진 것도 있는데, 모두 단식 송풍관이다. 노 내에 삽입되었던 송풍관의 끝 부분에는 슬러그가 붙어 있으며, 고온으로 녹아내려 두께가 얇아지고 유리질(琉璃質)화 되어 있다. 이처럼 송풍관에 용착(鎔着)된 슬래그는 일반적인 철재(鐵滓)와는 달리 자성을 강하게 띠며 비중이 높아 철성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풍관은 제철로 내에서도 철괴(鐵塊)가 형성되는 높이 정도에 장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송풍관에 용착된 슬러그가 모두 흘러내린 상태를 보이고 있어 송풍관이 노벽에 비스듬히 삽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내에 삽입한 송풍관의 안팎에는 굵은 모래가 다량 혼입된 점토를 덧발라 균열로 인한 누풍(漏風)과 송풍관 끝 부분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했다.

2.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철의 품질특성

한국 남부에서 철의 생산은, 경남 마산시 성산패총에서 야철지(冶鐵址)가 발견됨으로써 적어도 無文土器 말기인 기원 전 · 후 이전부터 야철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고고학적인 연구와는 달리, 남한의 초기 철기시대에는 제철(製鐵)과 제강(提綱)이 거의 동시에 사용했다는 이남규의 주장과 이견무의 남한(중서부) 지역의 철기 분석, 남부 지역의 출토유물을 비교하여 철기생산기술은 기원전 3세기부터 청천강 북쪽의 서북한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전국시대 기원전 3세기의 주조기술이 전국계 유이민을 통해서 도입되어 기원전 2세기에는 대동강유역과 황해도

57) 《마산시 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1976)

를 거쳐서 남쪽의 중서부지역까지 전파되었고 기원전 1세기에는 동남부지역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당대에 고조선에서 강철을 주조할 수 있긴 했지만 제조과정상 탄소함유량을 줄이는데 중국식 방식보다 매우 힘들었던 관계로 탄소함유량이 많은 편이었다. 중국은 청동을 사용했던 당시의 제련과정을 도입하여 흙거푸집과 철거푸집에서 지갱식 가열로를 도입하여 주철 단계(백주철에서 회주철로 발전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가단주철을 일찍 발견했다는 점에서 유럽보다 1000여년 빨리 생철 야주 기술이 발명되었다.⁵⁸⁾ 따라서 중국의 강철과 한반도의 강철은 탄소 함유량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강이라 하면 탄소강을 의미하며 탄소의 함유량은 0.04~1.7% 정도다. 당시 탄소함유량이 많은 유물들은 주철을 의미한다.

낙동강유역은 서북한계 토광묘(土壙墓)와 패총(貝塚) 및 기타 매장유적이 있으나 아직 반수혈주거지(半竪穴住居址)는 발견된 바 없고, 이 지역 패총들의 층위별 유물 중 철기 출토층에 무문토기가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면서 한강유역권 보다 철기가 늦게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철기 자체도 한강유역권과 마찬가지로 선철(銑鐵)과 강철(鋼鐵)이 초기부터 동시에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철기 분석결과에 따른 금속학적(金屬學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남한의 초기철기들이 대부분 주철(鑄鐵)과 강(鋼)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자체발생의 원시적 괴련철은 존재하지 않았고, 둘째, 선철의 제조기술은 백주철 생산 수준에 불과했던 것 같으며 내충격성과 전성을 갖는 전성주철이나 내마찰성을 갖는 회주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강제유물(鋼製遺物) 중, 마장리 철판 일예만이 선철계 탈탄강이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중국에서 西(前)漢代 이후에 발달한 백련강 제품들이다.

58) 이항덕, 《중국역사상적강철야금기술》, 자연과학(1951)

넷째, 마장리 철판(鐵片)과 웅천 촉만이 수연입(水燒入 water quenching)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방령(放冷)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당시의 강제철기(鋼製鐵器) 중, 선철계 탈탄강보다는 제작이 쉬운 괴련철 침탄강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은 제철기술이 본격적으로 선강계 탄소강의 제작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괴련철이 보이지 않고 선철과 백련강 수준의 철기들만이 분석결과에서 밝혀져 있어, 남한 전지역 초기철기들은 西漢代에 발달하기 시작한 제철기술의 영향에 의해 제작된 것이 확실하며, 그 유입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낙랑군의 설치를 들고 있다. 59)

제2절 고대 철 무역

1. 변·진 시대 철 생산의 비교우위

낙동강 유역의 변한과 진한의 철 생산에 대하여 판상철제품(板狀鐵製品)과 주조부형품(鑄造斧形品)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창원 다호리와 울산 다운동 유적에는 단조제품과 주조철부가 공반되고 있어 주조와 단조의 2대 생산체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김해 양동리 162호와 경주 사라리 130호분 등 원삼국시대후기 무덤에서 여러 점의 판상철부와 함께 쇠단지(鐵鍔)가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낙동강 유역의 주조기술의 발전을 의미하여,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三國志》의 기사처럼 변진의 주조기술이 낙랑지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59) 정기정, 《韓國 鐵器文化의 發達過程 研究》, 숭실대학교(1995), pp.24-26

하면 낙랑지역의 위신품(威信品)은 칠기(漆器)로 철제 용기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그나마 철제 용기 역시 중국의 정(鼎)이나 부(釜)와 다른 계통으로 자체 생산의 가능성이 약하다. 또 낙랑 지역에서 발견되는 철경은 입사문양이 漢 대의 것과 유사하여 자체 생산보다는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조품이 소멸되는 현상 역시 생산기술의 단절을 나타낸다.

그러나 영남지방에서는 단조와 관련된 철소재인 판상철부가 주조의 철제 용기류와 함께 부장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단조와 주조가 같은 생상체계 속에서 이루어져 주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장신(長身)의 주조철부와 보습의 제작이 보편화된다.

따라서 종래의 견해처럼 한사군을 통한 칠기문화의 유입으로 제철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청동 주조기술과 전국계(戰國系) 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독특한 제철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부지방에서 단조기술은 무기류는 물론 농기구의 다양화를 통해 계승·발전되지만, 중국처럼 초강(炒鋼)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변혁보다는 대량생산을 통한 칠기의 보급과 유통이 중심이 된다. 이로 인해 원삼국시대 후기부터는 《三國志》의 기사처럼 철제품 혹은 철을 일본은 물론 낙랑·대방군에 공급하고 있다.

《三國志》魏書東夷傳(이하 “魏志”라고 한다.)의 弁辰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

여기서 ‘변진(弁辰)’·‘철(鐵)’·‘시매(市買)’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辰韓’지역에서는 鐵(철광석)이 산출되고 한(韓)·예(濊)·왜(倭)

가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한은 弁韓·辰韓으로 생각된다.

3세기 대에는 삼한지역에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영역도 형성되어 있고, 영유관계도 명확히 있었을 것이다. 한(韓)·예(濊)·왜(倭)가 모두 철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관계 채굴권(採掘權)은 弁辰에 속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국출철(國出鐵)’의 철은 사철(砂鐵)인지 철광석(鐵鑛石)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를 볼 때 3·4세기 대에는 사철이나 철광석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

《三國志》를 통해 변·진한 지역에 철이 생산되고 남해안의 해로와 낙동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수출이 되고 있음은 확인되나 무엇 때문에 변·진한에서 생산되는 철이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먼 타국에까지 수출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거 자료 연구나 유적 발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혹자는 김해는 철 생산지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철제품을 수출하는 단순한 항구였으며, 이를 대가로 외래의 교역품을 들여와 분배하는 역할을 한 곳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정부분 공감이가는 부분이기는 하나, 김해지역에서 철이 생산되지 않아도 가야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폐(語弊)가 있다.

철기 생산 공정은 채광(採光) 이후 철광석에서 철 성분을 뽑아내는 제련(製鍊)작업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를 넣어 강도를 높여 제품을 만드는 단야(鍛冶)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변·진 지역에서 발견되는 채굴, 제철 유적과 수많은 철기 부장품들이 이곳이 단순히 철 생산품들을 유통시키는 무역항으로써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노천에서 철광석을 캐 수 있는 철광산이 있고, 이를 생산할 기술력이 있으며, 철광석과 제품을 운반하기 편한 해운과 수운이 발달했던 최적의 장소인 변·진한에서의 철 생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 철기 문화를 꽃피웠을 것이다.

2. 가야, 신라 시대의 철 생산과 유통

현재까지 가야지역에서 조사된 철 생산 유적은 밀양사촌제철유적과 양산물금유적 2개소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이 두 유적은 모두 신라의 철 생산 집단으로 파악되며 시기도 6세기 이후의 생산 유적이다. 즉 가야세력(伽倻勢力)이 주도한 철 생산유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른 이 지역에서 철 생산이 있어 왔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가야고유의 철 생산 기술은 파악하기 힘들다.

사촌유적에서 조사된 노(爐)는 4세기대의 제철유적인 진천 석장리 유적의 것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우선 노의 축조에서 그 하부에 3단 내외의 석축(石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좀 더 대규모의 노를 축조하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압력을 버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재(鐵滓)의 배재방법(排滓方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천 석장리의 경우는 노의 앞면을 터서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사촌에서는 철재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배재부의 움푹한 곳에 모아서 들어내는 기술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 바닥면의 하부에 제습, 보온을 위한 하부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배려이다. 송풍관(送風管)의 경우는 지금 20cm 내외의 크기로 거의 동일하지만 송풍관의 두께가 현저히 얇아져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내에 장입된 부분에는 점토로 보강하여 주었다. 또한 송풍의 방법에서 송풍관의 외벽에 붙은 철재(鐵滓)의 흘러내림의 관찰을 통해 송풍구 앞이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로 두고 송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촌유적에서 보이는 제련로의 형태와 그 기술수준은 이미 백제지역의 진천석장리유적에서 보이는 기술수준과 거의 흡사하다. 즉 원통형 노의 형태와 노벽의 재료와 축조기술, 송풍기술 등 철 생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기술적 전통이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가야의 철 생산 기술도 같은 동일계보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가야의 철 생산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철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자연적 조건이다. 창원 다호리, 김해 양동리, 대성동으로 이어지는 금관가야의 철 생산은 그 원료가 되는 산지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현재까지 낙동강 동안 즉 밀양, 양산지역에서는 신라의 국가 경영화된 5개소의 철 생산유적이 확인되어 있다. 이것은 신라세력의 점령 이전 이 지역 내에 이미 철광산이 개발되었으며 계속된 철 생산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결국 신라세력이 이 지역 내의 대단위의 철 생산 벨트를 조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한편 4세기까지의 철 생산을 주도한 금관가야의 생산자들은 김해세력의 약화로 생산 집단의 와해로 인한 신라세력으로서의 흡수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탈 등 재편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진은 타 지역 함안(咸安), 고령(高靈), 합천(陝川)지역의 세력권으로 이동하면서 각 지역 내의 광산의 개발과 기술전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합천, 함안지역의 대형고분군에 보이는 철기의 대량부장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⁶⁰⁾

지금까지 발굴 성과를 보면 분명 다호리 단계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에 목관묘를 중심으로 철기가 부장된다. 이후 목관묘 마지막단계까지 철기의 형태적 변화 또는 부장양상은 거의 차이 없이 계속되어진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가야지역의 철 생산이 이미 기원전 1세기에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60) 손명조, <伽倻의 鐵生産과 流通>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2003), pp.239-243

철기의 제작은 철 생산이 없이도 철기를 제작하는 소재의 확보로서도 단야(鍛冶)기술만 있으면 가능하다. 즉 철 생산과 철기의 제작은 구분되어 져야 한다.

보다 확실한 근거는 창원 다호리 64호분에서 출토된 철광석의 출토이다. 분묘 내에 철광석이 부장(副葬)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는 철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연히 철 생산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64호분의 시기는 토기편년을 근거로 볼 때 2세기 전반 후엽에 해당되는 시기⁶¹⁾로 다시 말해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진정한 철 생산이 가야지역 특히 김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야지역에 있어 철 생산의 시작은 부분적인 철 생산의 시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목관묘 마지막 단계에서 목관묘로의 이행시기에는 확실한 철 생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철 생산은 이후 가야의 성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진행되어 간다.

3세기 중엽까지의 철 생산은 판상철부, 주조철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 철기제작소재에서 동일한 제품이 공급되며 생산물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거의 없이 동일한 생산품만이 나타난다. 즉 이것은 변진한의 철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곧 동일한 생산기술집단이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세기 전반에 들어서 토착인이 중국 군현에 출입하는 빈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군현지역과의 물자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위(魏), 촉(蜀), 오(吳) 3국은 배후지 안정과 재원 조달을 위해 변경과 이민족사회를 적극 개척하였고, 위(魏)의 경우 공손씨(公孫氏) 공략과정에서 요동(遼東)의 철산지가 해를 입어 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로 인해 변한(弁韓)의 철이 낙랑·대방군에 공급

61) 안재호, <弁辰韓의 木棺墓 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學》, 청목서점(2000)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²⁾ 3세기 경 중국제 동정(銅鼎)이 김해와 울산지역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일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가야와 일본과의 무역을 보면, 가야지역에서 물자를 교역해가는 중요세력의 하나는 왜인(倭人)들이었다. 이전부터 왜인들은 경상도 해안지역을 오가며 필요한 물자를 교역해갔으나 점차 김해지역이 왜인들의 교역활동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갔다. 2세기말 3세기대 이후가 되면 김해지역은 왜계 유물의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왜인들의 주요 관심 물자가 철이었던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이 시기 왜인들과 교섭 흔적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 유물로는 왜계(倭系) 연질토기(軟質土器)와 석제화살촉, 방추차형석제품, 청동제통형토기(筒形土器), 파형토기(巴形土器) 등이다. 이들 왜계 유물들은 거의가 교환가치나 실용가치가 높은 물품이라기 보다는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많다.⁶³⁾

가야지역에서는 왜계(倭系)물품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열도에서도 한반도계 유물이 발견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들 양 지역 간에는 빈번한 교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왜계(倭系)유물의 대부분은 경상도 지역과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어 왜(倭)와 활발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로 弁韓지역의 집단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왜(倭)의 대한(對韓)교역 욕구를 촉진시킨 것은 철(鐵)이었으며, 철을 매개로 김해 일대에 모여드는 낙랑, 대방, 예(濊), 마한을 비롯한 각지의 교역품도 왜(倭)의 대한(對韓)교역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미생시대(彌生時代)유적에서는 각종의 수입 철소재와 이를 이용한 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적정수(赤井手), 수구강본(須久岡本),

6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대사속의 가야》, 혜안출판사(2001), p.310

6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상계서) pp.330-331

비혜(比惠)유적 일대는 변한지역과의 철 물류센터로 알려져 있다.⁶⁴⁾ 이 층 눈에 띄는 것은 북구주(北九州) 북강(福岡)평야 적정수(赤井手)유적의 단야 공방(鍛冶工房)으로 이곳 6호 토광(土坑)에서 출토된 봉장(棒狀) 철소재(착장철기;鑿狀鐵器)는 김해 양동리 200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특히 양동리 200호분에서는 倭系 광형동모(廣形銅矛)가 출토되어 왜(倭)와의 접촉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왜로부터 변한지역에서 들어온 교역품 중에는 일본열도의 토산품이 포함되었을 것이나 현재 유물로서 확인되는 것은 거의가 실용성이 퇴색된 의기화(儀器化)된 청동제품들이다.⁶⁵⁾

그러나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양상(兩象)으로 급변하게 된다.

첫째는 변, 진한의 각 지역에서 대규모의 철기생산집단이 등장하면서 독자적인 두 지역의 철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는 변진한 소국의 소읍성장기(小邑成長期)로서 중심세력은 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철의 확보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주에서는 경주 황성동유적처럼 대규모 생산 집단의 출현이 보인다. 김해지역에서는 생산 집단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김해 양동리 고분에서 보이는 철기의 대량이납(大量埋納)현상과 왜(倭), 한대(漢代)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철 생산과 유통구조가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철제유물에서 이전의 판상철부에서 벗어나 경주, 울산지역에서는 폭이 넓은 판상철부가 제작되는 현상은 곧 이전의 판상철부라는 일관된 철기제작소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통 매체물을 만들고 있는 것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3세기 후반은 국제정세에서 낙랑(樂浪)의 통제력이 약화되

64) 이남규,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 문화;鐵器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3), p.267

6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게서, pp.311-312

면서 기존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루트를 개발하게 된다. 그 새로운 루트는 일본열도와 내부통일이다. 즉 철기의 주요 수입처인 낙랑의 약화는 새로운 수출처인 일본열도로 대체된다. 당시 일본의 정세는 대화정권(大和政權)의 성립과정에서 무엇보다 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인 철공급루트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산물의 내부유통에 주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관가야의 성립과 함께 이들의 세력장악을 위해서는 철기의 수급이라는 경제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정치권을 장악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로 3~4세기대의 생활유적에서 단야공방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조철부 형태가 정형성이 없이 제작되고 있는 점, 등은 각 지역마다 충분한 철기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량과 유통구조가 완성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한족사회에도 양질의 철기가 다량 생산되고 이를 매개로 각 집단 간에 활발하게 물자교역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사회에 있어서 물자교류나 전파의 방법으로는 주민의 이동이나 혼인들을 통한 집단 간의 증여(贈與), 전쟁에 의한 전리품 획득, 물물교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물물교환의 형태만 해도 발전 단계에 따라 가장 원초적인 폐쇄적 자급자족의 교환관계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발달한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교역이 진행되는 개방적인 교환경제도 있다.

그런데 여러 문헌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삼한의 일부지역에서는 철(鐵)이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실제 고고학 유물 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철정(鐵錠)들이 1세기 이후의 지배자들의 분묘(墳墓)에서 발견되고 있다. 조양동(朝陽洞) 토광묘(土壙墓)에서처럼 철정(鐵錠)을 다량 부장(副葬)하는 지배자의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특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신속하게 재부(財富)가 축적되고 각 집단 간에 세력의 격차가 생김으로써 지배 권력의 집중화가 진행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

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4세기에 들면서 김해지역에서는 판상철부의 유통은 계속되어졌다.

이는 신라세력과 완전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제작소재인 판상철부에서 보면 4세기 중엽까지 대성동에서는 세장방형(細長方形)의 판상철부가 계속해서 이용되는 반면 울산 하대유적에서는 이 시기에 대형의 장방형(長方形) 판상철부가 나타난다. 즉 유통 물에서의 확실한 변화양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두 지역 간의 생산체계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이전까지의 변진한단계의 철기 유통은 서로 교류 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전의 상황이 공조된 형태의 생산이라고 하면 이 시기부터는 분리된 생산, 유통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4세기



[그림 5] 판상철부의 변모

후반 금관가야권의 단조철기의 규격화(規格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조철부(鑄造鐵斧) 역시 세장한 형태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즉 각 권역별 생산유통구조의 완전한 분리와 함께 자체적인 생산, 제작의 공인집단(工人集團)을 재편성, 재생산 시키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결과물로서 철정(鐵錠)과 새로운 형태의 주조철부라는 유통매체물을 등장 시키고 있다. 66)

가야지역의 철 생산 유통을 정리한다면, 4세기까지는 변진한의 철기문

66) 손명조, <앞의 글>, pp.257-260

화를 그대로 계승한 채 변한지역의 김해세력이 된 철 생산과 유통권을 장악하였으며 이후 5세기에 들어서는 일률적인 체제는 붕괴되고 지역별 철 생산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IV장 가야 및 신라의 철 무역

제1절 가야 및 신라의 무역 형태

3세기까지의 가야는 낙랑으로부터 무기나 귀중품등을 사다가 낙동강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경상 내륙지역 곳곳에 팔든지 또는 쓰시마와 이키를 거쳐 규슈 등의 왜지에 팔아서 막대한 중개무역 이익을 보았고, 그러한 교역은 그들의 철 생산과 함께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⁶⁷⁾

《삼국지》를 통해 변한사회 내에서 김해지역이 철을 매개로 주변 여러 세력 사이에 철 이외의 여러 가지 물자를 상호 교역하였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변한국들은 경상남도 해안 일대와 낙동강 중하류 연안에 분포하여 서해, 남해, 마산, 고성, 사천, 하동 등지 등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왜나 중국 군현과의 접촉이 용이한 개방적인 상태였다. 즉 철 자원과 지리적인 조건만으로는 고성, 사천, 마산, 동래 등 경남 해안 일대의 변한 소국

67) 김태식, 가야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 푸른역사 (2002) pp.89-92

<표>손명조, <伽倻의 鐵生産과 流通>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2003), 발췌

들이 김해중심의 무역체계의 하부단위로 편제 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삼국사기》 포상팔국(浦上八國)의 가라(加羅) 침략 기사를 보면 포상팔국 가운데 위치비정이 가능한 것은 창원의 골포(骨浦), 고성(古史浦國), 사천(史勿國)등이나 이들은 명칭 자체에서 암시되듯이 해상교통의 중요지점에 위치한 경남 해안 일대의 변한국들로 추정되며, 이들이 김해세력에 도전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변한세력들 가운데서도 양산, 밀양, 창녕, 함천, 고령, 성주 일대의 국들은 남해안 세력과는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이들이 대외접촉을 위해 해안으로 출로를 모색한다면 하구의 김해라는 관문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김해와 같은 교역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특히 변한 지역에서 중국 군현은 다량의 철을 사가는 수요자인 동시에 중요무역품의 공급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군현 축출로 이 지역에 유입되던 중국계 물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리란 추정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특정무역품의 공급 단절과 무역상대의 소멸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무역활동 자체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4세기 전반대의 변화는 중국계 물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역루트의 출현과 고구려-신라-왜라는 무역루트의 개척, 그리고 이로 인한 가야사회의 무역활동 위축으로 집약된다. 중국 군현 축출 이후 대방고지(帶方故地)를 두고 고구려와 대립하던 백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366년 신라에 래빙(來聘)하고, 368년 신라에 양마(良馬)를 보내는 등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근초고왕이 전남 지역의 마한세력에 대한 정복을 발판으로, 가야 지역의 진출을 시도하고, 대외(對倭) 무역루트 확보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신라와 대립하였다.⁶⁸⁾

무역문제에서 가야세력권이 서부 경남 해안지역과 김해세력권으로 나누

68) 이현해, <앞의 책> pp.303-305

어졌음을 알 수 있다. 370년대까지도 김해의 세력은 낙동강 하류 일대의 중요 국들을 무역기반으로 하여 고구려-신라계의 무역권에 동참하면서 이 전시대의 독자성과 선진성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김해의 무역기반은 369년 백제·왜의 도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이 지역을 통해 남해안 및 일본 열도로 통하는 무역루트를 장악하려던 신라의 시도도 일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신라는 백제와 대립관계에 있던 고구려군을 끌어들이므로써 낙동강 하류 연안의 가야 각국에 대한 무역권 확보에 일단 성공하였다. 4세기 말엽에 이르면서 낙동강 동안(東岸)토기군이 출현하고, 이로 인해 김해·부산 지역이 동안권에 흡수되어 지역적 특성을 상실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주 지역의 토기와 묘제가 모두 낙동강 동안의 대구지역과 동일계통으로 나타나는 것 등은 모두 김해의 세력기반이 와해되면서 이 지역의 무역권이 재편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3세기대의 구야국(拘倭國)은 남해안 지역에서 관문사회(關門社會: Gateway community)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면서 물자의 집산(集散)과 보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4세기대에 들어와서 낙랑·대방군의 축출로 변진의 철과 중국산 물자를 매개로 하는 구야국 중심의 국제무역 체계가 후퇴하고 고구려-신라-가야-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루트와 창원의 탁순국을 매개로 백제-가야-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역루트가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주변국가의 철무역

1. 중국 및 일본과의 철 무역

신라는 경주분지에 자리 잡고 있던 사로국(斯盧國)이 주변의 국들을 흡수·통합하면서 성립된 국가였다. 《三國志》 권30, 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적어도 3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로국은 진한을 구성하는 12개 국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진한 시기의 무역은 국(國)과 국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체제와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로는 함남 지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추가령 지구대와 동해안의 태백산맥의 지형적 모습으로 이루어 저지대와 지구대, 해안저지대를 따라 무역 교통로가 일찍이 형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이시기에는 한강 중류지역과 낙동강 중류지역, 낙동강 하구의 김해지방, 영산강 하구의 영암지방, 금강 하구의 군산지방, 한강 하구 등 지형으로 말미암아 강 지류가 만나는 지점과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이용한 해상 루트도 적극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해상루트는 중국 군현과 본토 및 왜와의 원거리 교역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중국 군현과의 교역은 대동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서 낙동강 유역에 이르는 루트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루트는 섬을 징검다리로 하는 연안항로였다. 늑도 유적에서 나온 다양한 물품들은 이 지역이 교역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 루트는 중국 군현과 왜가 교역할 때도 활용되었다.⁶⁹⁾

진한에서 초창기 교역의 모습은 《三國志》 권30, 위서 동이전 한조에서 나타난다.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鐵 又以供給二郡.⁷⁰⁾

69) 윤재운, <삼국시대의 무역> 《한국무역의 역사》 청아출판사(2010) pp.128-129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진한에 시장이 설치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철을 사용하였는데 이 철은 화폐처럼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변한과 진한의 철은 한·예·왜가 모두 와서 수입해 갔으며 중국 군현에도 공급되는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철이 당시 중요한 교역품으로서 기능을 하였음을 알게 한다.

그 당시 교역에 사용된 철이 이른바 철정(鐵錠)이다. 철정은 고분에서는 판상철부(板狀鐵斧)의 형태로 나오는 철소재인데 기원전 1세기경의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판상철부 다발묶음이 출토 되었고, 기원후 1세기대의 사라리 130호 목관묘에서 70매, 기원후 2~3세기경의 김해 양동리 162호·235호 목곽묘에서는 30~40매가 출토되었다. 이들 판상철부는 10매 단위로 부장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화폐 대신의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6]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발견된 철정

변한 지역에서 중국 군현은 다량의 철을 사가는 수요자인 동시에 중요 무역품의 공급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군현 축출로 이 지역에 유입되던 중국계 물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리란 추정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70) 나라에서 철이 나온다. 한(韓)·예(濊)·왜(倭)가 모두 와서 사간다. 여러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철을 사용하는 것처럼 한다. 또한 (낙랑·대방) 두 군(郡)에도 (철을)공급한다

특정무역품의 공급단절과 무역상대의 소멸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무역 활동 자체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 시기에 왜(倭)도 철을 수입해 갔다. 왜의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한반도계 유물 가운데는 교역을 통해 전해진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지만 진한 이 왜(倭)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경성대발굴팀이 발굴한 1~3세기의 목관묘(널무덤)와 4세기경의 목곽묘(덧널무덤)등은 금관가야와 왜(倭)가 당시 교섭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해 대성동 대형 목곽묘에서 나온 유물들은 금관가야의 전성기가 4세기이며, 금관가야 문화에 북방 문화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방패꾸미개로 쓰인 파형동기(巴形銅器), 대롱 모양의 방울인 통형동기(筒形銅器), 화살촉 형태의 벽옥제, 석제품 등은 당시 왜의 세력집단이 금관가야에 현상한 물품이거나 교역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물들은 왜의 중심지였던 긴키(近畿)지방의 대형 고분에서 나온 유물과 아주 비슷했다. 이는 3세기 이전까지 김해 지역 조만천 수계 집단의 대외교역은 주로 규슈지방에 집중 되었지만, 4세기에 접어들면 대외교섭의 중심지가 긴키의 야마토 정권으로 교체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금관가야의 핵심세력인 대성동 집단과 긴키 집단과의 교섭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⁷¹⁾



[그림 7]와질토기



[그림 8]낙랑토기



[그림 9]야요이토기

71) 박창희, <제국의 흥망> 《살아있는 가야사이야기》 이문아침(2005) pp.219-221

끝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관장하고 통제했는가 하는 것이다. 교역에 대한 통제 및 감시는 정치권력의 성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교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이익을 누가 챙기느냐는 정치적 힘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철은 중량이 많이 나가므로 육상교통의 중요한 수단인 도로나 우마차 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시에 다량의 운송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해상교통은 다량의 철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것이 금은(金銀)이 교역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⁷²⁾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금은은 철과는 달리 소량으로도 고가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상교역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는 《日本書紀》의 신공황후기의 기록에서 황후가 금은을 획득하기 위하여 신라정벌을 단행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³⁾ 금은(金銀)은 철기에 비해 중량이 적어 원거리 상업 활동도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기존의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철을 중요한 교역수단으로 삼아 왔던 금관국 중심의 교역권이 일시에 소멸된 것은 아니며 그 명맥은 한동안 유지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변화된 교역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탓에 사로국 중심의 교역권에 비하여 이후 발전이 뒤떨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2. 삼국 및 남북국 간의 철 무역

72) 十日年 春二月 下命 農者政本 食誰民天 誰州郡修完堤防 廣闢田野 又下命 禁民間用金銀珠玉, 《三國史記》卷1, 逸聖尼師令).

73) 《日本書紀》(전략)…韓鄉之嶋是有金銀若使吾兒所御之國…

74) 주보돈,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嶺南考古學》 19, 1996, pp.16-23

백제-가야-왜의 무역망에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던 신라의 내물왕은 392년에 왕족인 실성(實聖)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는 질자(質子)외교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어 396년에 남으로 백제를 공략하기 시작하여 58성 700촌을 점령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백제 주도의 해양무역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오던 왜는 기왕의 무역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의 대고구려 결탁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군사적 위협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차에, 왕자까지 동원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상황의 심각성과 위협성을 설득해 오는 백제의 정치·군사적 연대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와 왜는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해서도 바다를 통해 공격함으로써 중국-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이전의 해양무역질서를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475년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기세를 꺾고 동북아 국제 해양무역을 주도하려던 백제의 꿈과 야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웅진 천도 후 백제는 대중국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당시 일본 열도와 남중국과의 교섭은 ‘북규슈-한반도의 서남해안-발해만-산둥반도-남경’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이용하였다. 백제와 중국 남조의 활발한 교섭은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고학 자료에서 무령왕릉의 구조와 그 부장품이 양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과, 익산 입점리 고분군에서 남조의 청자가 출토된 점에서 백제와 중국 남조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입점리 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수도의 관문을 방어하는 것 외에 대중국 무역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해양강국을 재건하려

는 백제의 꿈은 무령왕 대에서 이루어 졌으나 532년 금관가야를 복속시켜 해양진출을 꾀하던 신라에 의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서로 라이벌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연안항로의 경색(梗塞) 국면 타개라는 공동 관심사를 실현하기위해 의기투합하여 고구려 공격에 힘을 합쳤다. 551년 백제와 신라 군대의 고구려 공격에 의해 백제는 한강하류지역을, 신라는 한강상류지역을 장악하였다.

<표4-1> 백제 웅진시대의 대중관계

번호	연도	기 년		주요내용	출전
		백제	중국		
1	476	문주왕 2년	원휘 4년	조공(송)	삼국사기
2	480	동성왕 2년	건원 2년	조공(남제)	南史
3	480			봉책(남제)	
4	484	동성왕 6년	영명 2년	기타 청구(남제)	삼국사기
5	484			허가(남제)	
6	484			조공(남제)	
7	486	동성왕 8년	영명 4년	조공(남제)	
8	488	동성왕 10년	영명 6년	전쟁(위)	南齊書
9	490	동성왕 12년	영명 8년	전쟁(위)	
10	490			관작청구(남제)	
11	490			봉책(남제)	
12	490			봉책(남제)	
13	495	동성왕 17년	건무 2년	관작청구(남제)	
14	495			봉책(남제)	
15	502	무령왕 2년	천감 1년	봉책(양)	梁書
16	512	무령왕 12년	천감 11년	조공(양)	
17	521	무령왕 21년	보통 2년	조공(양)	
18	521			봉책(양)	
19	522	무령왕 22년	보통 3년	조공(양)	冊府元龜
20	524	성왕 2년	보통 5년	봉책(양)	梁書
21	534	성왕 12년	중대통 6년	조공(양)	

신라는 4세기부터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정치체제에 반영되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의 체제가 완성된 것을 중고기(中

古期)로 볼 수 있다. 중고기란 《삼국유사》에서 법흥왕 대부터 진덕여왕대에 이르는 약 140년간을 지칭한 용어인데, 이 시기는 흔히 고대국가의 성립기로 불린다.⁷⁵⁾

신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삼국 가운데 대중국 교섭이 가장 늦었으며, 고구려의 안내로 대중국 교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처음으로 중국(前秦)과 교섭한 시기인 내물왕(356~402) 때는 고구려의 광개토왕(391~413)의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어, 고구려 사신을 따라 당시 서역문물의 집합소인 장안에 갈 수 있었다.⁷⁶⁾ 신라는 전진과의 교섭 이후 법흥왕8년(521)의 양나라와의 교섭까지 140여 년간 중국과 교섭이 없었으며, 그 후 진흥왕 25년(564)이후 진나라와의 계속된 교섭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없었다.

신라의 영토 확장 또는 대외교섭의 루트 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동해안 지역의 점령과 울릉도의 복속을 통한 동해해상권의 장악이다. 고구려에 예속되어 어염(魚鹽)을 바쳤던 동예(東濊)가 신라에 의해 위협을 받자 고구려는 어염의 문제 못지않게 동해 제해권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신라 눌지왕대 이후 고구려 장수왕과 문자왕의 통치시기에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을 본격화 하였다. 울진·영해·영덕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안 지역은 5세기 내내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6세기대에 접어들어 신라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신라는 경주의 지역적 위치가 동해 바닷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해안

75) 김철준,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古代史研究》, 서울대出版部(1990), p.51

76) 신형식, <新羅와 西域> 《新羅文化》 8,(1991), p.121

제해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서 해양문화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석탈해의 등장이 가능하였다. 해양 및 어로문화의 기반을 수용한 신라는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에 일찍이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지증왕대 오면서 삼척에 실직주(悉直州), 강릉에 아슬라주(阿瑟羅州) 설치, 아시촌(阿尸村)에 소경을 설치하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동해안 지역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한강 유역의 점령이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군사 충돌을 틈타 백제와 고구려 영역을 잠식하였다. 6세기 전반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을 극복한 신라 세력의 팽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51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이다. 이 비는 신라가 6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엔가 죽령을 넘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단양지역을 공취하고 적성산성을 경영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곧 신라가 영월-단양-충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작전선을 차단하며 중원 지방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신라 단양적성비

《삼국사기》에 따르면 551년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수 유역을 분할 점령하였으며, 2년 뒤인 553년 신라는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였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554년 백제는 대가야군 및 왜와 합세하여 신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섰다.⁷⁷⁾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은 경제적·군사적 팽창의 계기가 되어 대가야 정벌로 결실을 맺었다. 더구나 한강 유역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있어

77) 박경철,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그 地政學的 · 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先史와 古代》 15, (2000) p.288

서 최후로 당군을 축출시킨 곳으로 신라는 한강 유역 경영에 큰 비중을 두었다.

무역과 관련한 한강 유역의 점령의미는 바다를 통한 대중국(對中國) 통로의 확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나 백제는 이 지역을 상실한 후 당항성을 통해 신라의 대중통로의 차단을 시도했던 것이다.

결국 진흥왕 14년(553)의 한강 유역 확보는 신라의 중국관계, 나아가 무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이다. 3세기 중반 단계 한군현과 왜, 예 및 한(韓)의 중계무역 중심지는 바로 낙동강 하구의 김해지역이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로 보아 구야국은 중계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변한세력을 압도하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야국이 중계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계속 확대하려면 낙동강의 수로를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낙동강 수로를 통하여 그 중·상류에 위치한 여러 진·변한 소국들과의 교역을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하던 사로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三國史記》신라 본기를 통해 신라와 구야국이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기사와 황산진(黃山津)에서의 전투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⁷⁸⁾ 이와같은 《三國史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어느 시기엔가 사로국이 구야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을 장악하고, 나아가 낙동강을 통한 수로교통을 통제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진서》의 전사기록은 3세기 후반에 사로국이 구야국을 압도하고 낙동강 수로의 통제권을 장악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⁷⁹⁾

78) 《三國史記》新羅本紀 탈해니사금 21년 8월.

79) 전덕재,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2000), pp96-99

6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야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크게 변하였다. 한강 유역을 잃은 백제는 그 보상을 낙동강 유역의 가야 땅에서 찾으려 하여 이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백제의 움직임은 신라를 자극하게 되었다. 더욱이 백제가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가야에 대한 강한 야욕을 품고 있던 왜를 끌어들이게 되자 가야 여러 나라는 또 다시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백제의 적극적인 가야 진출에 대해 가야 맹주인 대가야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라는 법흥왕 19년(532)에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된다.⁸⁰⁾ 이때 신라는 투항한 금관국의 지배계층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三國史記》에 기록되어있으나 실상은 《삼국유사》⁸¹⁾에 나오는 대로 구해의 형제인 탈지(脫知)에게 금관국의 지배를 맡기고 구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경주로 이주시킨 것이 사실일 것이다. 신라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최고 지배자를 본래의 지배기반으로부터 유리시켜 더 이상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라고 볼 수도 있다.⁸²⁾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낙동강과 남해안의 교통상 요충지이자 대왜(對倭) 무역창구인 김해 금관가야의 지배층을 포섭하려는 의미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루트로서의 가야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반도-일본으로 이어지는 루트뿐만 아니라 요동 지방-한강 유역-낙동강 지역-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무역루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는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소백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있는데, 이 두 하천은 영남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원거리 무역로의 발달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하천은 조령(鳥

80) 《三國史記》 卷4, 법흥왕 19년.

81) 《三國遺事》 卷2, 奇異2, 駕洛國記

82) 이우태, <앞의 책> (1997)

嶺)을 경계로 40km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연결하면 대략 500km의 종관 수송로(縱貫輸送路)가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것을 전제로 낙랑군과 변진·진한 지역 및 왜국과의 사이에 원거리 무역로가 존재하였다고 한다.⁸³⁾

가야의 지정학적 위치를 검토할 때, 이 같은 가설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야의 입지는 낙동강 하류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왜에 접하는 워크포인트(work-point)에 위치하여 대안의 왜에 대한 물자유통의 집산지로서, 왜에게는 선진문물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창구로서 기대되는 곳이었다.⁸⁴⁾

결국 신라는 중고기 때 가야를 흡수하면서 그들이 철기문화와 교역루트를 통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영토 확장을 꾀했고 이를 통해 대중국·대왜무역의 루트를 장악하여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물류·무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제3절 철 무역 발전을 통한 통일국가의 성립

고대 한반도는 동서남북(東;동예·옥저, 西;낙랑, 南;삼한, 北;부여·고구려)간의 권력구도가 팽팽했다. 그러나 철을 자원화 하게 되면서 삼한은 중국과 일본에 철을 수출하여 富를 축적하게 되고 강한무기를 개발함으로써

83) 최영준,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的·地理的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0)

84) 이성시, <新羅의國家形成と伽倻> 《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2-,吉川弘文館(2002), p.280

한반도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강한무기의 개발은 큰 정치세력이 작은 정치세력을 통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4세기 초의 한반도 정세는 313년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을 멸망시켜 통합하고 삼한은 여러 부족들의 연맹체였던지라 작은 정치세력이 큰 정치세력에게 패하거나 자연스럽게 흡수 되면서 신라, 백제, 가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우리가 아는 삼국(사국;가야포함)의 통일국가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제V장 결론

중국 진나라의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의 한조에는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 사이의 한반도 남부지방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 당시 한반도에는 마한, 진한, 변한에 모두 78국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 중에서 지리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았던 곳은 마한지역이었고 진한과 변한지역은 상대적으로 잉여생산물이 적고 인구도 적었다. 따라서 마한지역이 보다 부강한 군장사회를 이룩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변,진한 지역에는 낙동강 수계에서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았고 수로를 이용한 교역이 활발하였다. 또 서 남해 연안 해역을 이용한 낙랑, 대방과의 무역과 현해탄을 건너는 왜와의 무역이 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한 진한지역에서는 양질의 자철광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련하여 철제품을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철은 당시 한, 예, 왜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중국 한나라 군

현인 낙랑과 대방과도 철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철은 무기와 농기구 제작의 소재이며 철정과 철판은 화폐처럼 교환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철의 생산과 교역을 지배하는 세력은 부를 축적하고 그 경제력을 이용하여 지배권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 양질의 무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침략전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이에 따라 진한 지역에서 성장한 신라와 변한 지역의 가야국 연맹이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철을 확보하지 못한 마한 연맹은 한강유역에서 부여유민들이 세운 백제에 병합된 것과 대비된다.

6세기 중엽, 가야를 복속시킨 신라세력이 7세기 중엽에는 3국을 통일하는 것도 철 생산 및 철 무역 독점과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철은 중량이 많이 남으로서 육상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기에는 운송에 애로가 많았는데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 내륙 운송과 남해, 서해 및 대한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역조건이었다. 따라서 가야 신라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이후 330여년을 통일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찬란한 고대 한국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I. 참고문헌

- 길강완우, 《高麗靑瓷의 發生에 關한 考察》, 송전대학교(1979. 01)
- 김두진, <韓國古代의國家起原論> 《白山學報》 14, 백산학회(1973)
- <三韓時代의 邑落> 《韓國學論叢》 7,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1985)
- <三韓時代의 邑落> 《韓國學論叢》 7,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1985)
- <馬韓 社會의 構造와 性格> 《馬韓百濟文化》 12,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1990)
- 김철준, <魏志東夷傳에나타난韓國古代社會의性格> 《韓國文化史論》, 지식산업사(1976)
-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 역사학회(1962)
-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古代史研究》, 서울대出版部(1990)
- 김정배, <韓國古代의 國家起原論> 《白山學報》 14, 백산학회(1973)
-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고려대학교출판부(1985)
- 김종성, 《철의제국가야: 잊혀진 왕국가야의 실체》, 역사의아침(2010)
- 김태식, <가야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 푸른역사(2002)
- 김영민, 《금관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2008. 08)
- 노중국, 《韓國古代史論》, 한길사(1988)
- 노태돈, <三國의成立과發展> 《한국사》 2,(1977)
- 노태진, 《韓國古代 冶金技術史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 02)
- 東潮, <弁辰 辰韓의 철> 《伽倻諸國의 鐵》, 伽倻文化研究所(1994.12)
- 류승주, 《朝鮮時代 鑛業史 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1993)
- 문창로, <三韓時代邑落社會研究>, 국민대학교박사논문(1995)
- 박경철, <中原文化圈의歷史의展開-그地政學的·戰略的位相變化를中心으로> 《先史와古代》 15,(2000)
- 박창희, <제국의 흥망> 《살아있는 가야사이야기》, 이른아침(2005)
- 손명조, <伽倻의 鐵生産과 流通>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2003)
- <韓半島 中南部地方 鐵器生産遺蹟의 現狀> 《嶺南考古學》 22, (1998)

- 송계현,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 《가야제국의 철》, 신서원(1995)
- 신경숙, <釜山, 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1982)
- 신형식, <新羅와西域> 《新羅文化》 8,(1991)
- 손명조, <鐵器生産遺蹟을 中心으로> 《韓半島 中・南部地域 古代鐵器生産 技術과 發展過程의 研究를 위한 試論》, 동의대학교(1996. 12)
- 이광명, <철기유물을 중심으로> 《요동~서북한 초기철기시대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연구》, 부경대학교(2010. 08)
- 안재호, <弁辰韓의 木棺墓 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學》, 청목서점(2000)
- 윤재운, <삼국시대의무역> 《한국무역의역사》, 청아출판사(2010)
- 윤용구, <漢代 樂浪郡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회(1996. 06)
- 이건무外3, <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1> 《考古學誌》 1, 韓國考古美術研究所(1989.07)
- 外,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考古學誌》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1995)
- 이남규, <南韓 初期鐵器 文化의 一考察> 《韓國考古學報》 13, 한국고고학회(1982)
-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 문화;鐵器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3)
- <樂浪실치 以前을 중심으로>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樣相》, 한국고고사학보 36(2002)
- 이성시, <新羅의 國家形成と伽倻> 《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2002)
- 이성주, <原三國土器의 類型・系譜・編年・生産體制>, 《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1991)
- <1~3세기가야정치체의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1993)
- 이재현, <V. 考察> 《蔚山下垓遺蹟-古墳》, 부산대학교박물관(1997)
- <弁韓社會의 形成과 發展>,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2003)
- 이종욱, 《新羅上代國家形成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1980)
-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서강대학교(1981)

- 《新羅國家形成史研究》，서강대학교(1982)
- 이창숙, 《眞平王의 卽位를 전후한 政局動向》，부산사학 27(1994)
- 이항덕, 《중국역사상적강철야금기술》，자연과학(1951)
- 이현혜, 《三韓社會形成科程研究》，일조각(1984)
- <三韓時代의 농업 생산과 철제농기구> 《歷史學報》126, 역사학회(1990)
- <삼한 및 삼국의 교역활동>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일조각(1994)
- <삼한의대외교역체계>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논총》，일조각(1994)
- <鐵器普及과 政治權力의 성장-辰弁韓지역 정치집단을 중심으로> 《伽倻諸國의 鐵》，신서원(1995)
- 이형기, 《大伽倻의 形成과 發展 研究》，영남대학교(2003. 06)
- 윤용진, 《古新羅 形成과 周邊城邑國家의 變化》，인하대학교(1985. 02)
- 이형우, <주변 辰韓 諸「國」의 統合過程을 중심으로> 《新羅 初期國家 成長史 研究》，건국대학교(1993. 02)
- 이명식, <國家 形成科程을 中心으로> 《新羅上古史에 關한 研究》，고려대학교(1975. 12)
- 윤종균, <중남부지역의 고고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고대철생산에 대한 일고찰》，전남대학교(1998. 08)
- 전덕재,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 36》，한국 역사연구회(2000)
- 정경희, <先三國時代 社會와 經濟;정치권력의 성격과 유통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東方學志》41, 연세대학교출판부(1984)
- 정종목, <2천 년 전의 국제무역항 늑도> 《역사스페셜 2》，효형출판사(2001)
- 조건호, 《東アジアの鐵器文化史》，吉川弘文館(1982)
- 주보돈,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嶺南考古學》19, 1996
- 정기정, 《韓國 鐵器文化의 發達過程 研究》，숭실대학교(1995. 08)
- 천관우, <復元伽倻史>(上) 《文學과 知性》28, 문학과지성사(1977)
- 최병현, <鎭川地域 土器窯址와 原三國時代土器의 問題> 《昌山 金正基博

士華 甲念論叢》，(1990)

최영준,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的 · 地理的研究》，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0)

최종규,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1982)

최효석, 《한국 고대무역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2005. 08)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대사속의 가야》，해안출판사(2001)
《慶山林堂洞遺蹟 I -F · H地區및土域》，영남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1999)

《大邱八淙洞遺蹟 I》，영남문화재연구원(2000)

《浦項玉城理古墳群 I · II-나地區》，영남문화재연구원 · 浦項市(1998)

《蔚山下垵遺蹟-古墳 I》，부산대학교박물관(1997)

《마산시 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1976)

Hirth, Kemmeth G., "Interregional Trade and Formation of Prehistoric Gateway Communities", American Antiquity, Vol.43-1(1978)

Renfrew, Colin, "Trade as Action at a Distance: Questions of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1975)

史料

On 《經國大典》，《三國史記》，《三國志》，《世宗實錄》